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2020.January

Vol. 37

1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드
재정칼럼
툰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 Talk Talk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재정 캘린더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January, 2020
VOL. 37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분석기획부 | 02-6908-8593
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04 · 신년사

재정 INSIGHT

06 · KPFIS 인사이드

- ① 2020년 재정부운용 방향과 과제
김민경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 ② 2020년 사이버보안 위협 전망 및 대응방안
박종필 정보보호본부 차장

22 · 재정칼럼

- ① 2020년 재정부운영의 방향과 과제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한국행정학회 회장
- ② 정부 재정부운용 방향에 대한 평가와 과제
홍중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30 · 톺아보기

2020년 예산의 주요 내용

www.kpfis.or.kr



재정 NOW

- 32**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2019년 11월 말 기준 재정통계
- 38** •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국가채무
- 44** • 키워드 재정
성차별
- 50** • 해외재정동향
OECD 주요 재정·경제전망



재정 STORY

- 56** • 이달의 재정이야기
제1회「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 62** • 재정 Talk Talk
재정조기집행은 무엇인가요?
- 64**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마시스의 <환전상과 아내>와 대부업
그리고 이자의 본질
- 68** • 위대한 경제학자의 TMI
생산성의 수호성인 애덤 스미스
- 72** • KPFIS의 서재
- 74** • 재정 캘린더
- 76**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신년사

월간 「나라재정」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경자년(庚子年), '쥐의 해'입니다.
쥐의 경우,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강한 번식력과 부지런히
곡식을 물어다 쌓아두는 근면·성실함을 상징합니다.
또, '톰과 제리', '미키마우스' 등 유명한 만화의 주인공으로
친근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나라재정」도 독자 여러분에게
더욱 부지런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작년에 실시한 「나라재정」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독자
여러분의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여전히 재정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 「나라재정」은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정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지표를 단순한 숫자의 나열에서 벗어나
이해하기 쉬운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용어나 재정통계를 독자의 시선에서
생각하여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보다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높고 즐겨 보시는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독자들의 관심이 큰 재정 이슈에 대한 국가재정 운용의 현장 이야기나 재정운용의 숨은 이야기 등을 다양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인터뷰 및 에피소드 등의 소재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독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재정정보와 최신 재정 이슈 등에 관한 신규 콘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재정통계를 재정정보 공개포털인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으실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연간 재정 관련 일정과 함께 최근 발표된 재정 정책이나 재정통계, 행사 등의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지난 3년간 월간 「나라재정」은 다양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나라 대표 재정 전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자년 새해에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김 재 훈



01

KPFIS-인사이드

2020년 재정운용 방향과 과제

지난해 12월 10일, 2020년도 예산이 당초 정부안 보다 1.2조원 감액된 512.3조원 규모로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2019년도 예산 대비 42.7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튼튼한 국방·외교 등 다섯 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2020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민경 재정정보분석부 부연구위원(mkkim@kpfis.or.kr)



1 ————— 2020년 예산 개요

2020년도 예산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총지출은 당초 정부안 513.5조원에서 1.2조원 감액된 512.3조원으로, 총수입은 정부안 482.0조원 보다 0.2조원 감소한 481.8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규모로 42.7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¹ 적자는 71.5조원(GDP 대비 3.5%)으로 전년 대비 33.9조원이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805.2조원(GDP 대비 39.8%)으로 전년 대비 64.4조원 증가하였는데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 후반 이내에서,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표 1. 연도별 상반기 집행계획

(단위: 조원, %)

	2019년		2020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C-B)	전년 대비(C-A)	증가율
총수입	476.1	476.4	482.0	481.8	-0.2	5.7	1.2
총지출	469.6	475.4	513.5	512.3	-1.2	42.7	9.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37.6 (-1.9)	-42.3 (-2.2)	-72.1 (-3.6)	-71.5 (-3.5)	0.6 -	-33.9 -	- -
국가채무 (GDP 대비, %)	740.8 (37.1)	731.5 (37.2)	805.5 (39.8)	805.2 (39.8)	-0.4 -	64.4 -	-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12.11.)

¹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 2020년도 분야별 자원 배분과 재정운용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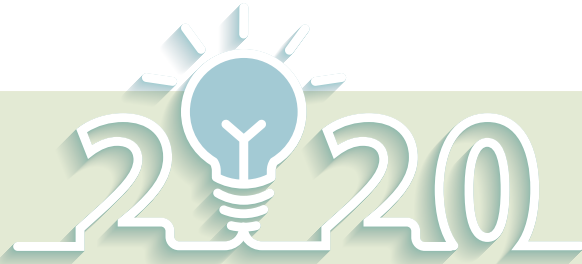
2020년도 예산을 12대 분야별 총지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5조원 증가(전년 대비 12.1% 증가)로 가장 컸으며 산업·중소·에너지 5.0조원 증가, R&D 3.7조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증액 규모는 1.6조원 규모이지만 증가율은 21.8%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주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지출과 일자리 관련 노동지출 사업 등이 확대되면서 증가하였으며 R&D 분야는 주로 핵심 부품개발 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 확충으로 증가하였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AI, 정밀의료, ICT, 친환경차 보급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산업분야 육성을 중심으로 증액이 이루어졌다. 반면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2.8%, 3.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 2020년도 분야별 자원 배분

(단위: 조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본예산(A)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C-B)	전년 대비(C-A)	증가율
총지출	469.6	513.5	512.3	-1.2	42.7	9.1
1. 보건·복지·고용	161.0	181.6	180.5	-1.0	19.5	12.1
2. 교육 (교부금 제외)	70.6 (15.4)	72.5 (17.0)	72.6 (17.3)	0.2 (0.3)	2.0 (1.9)	2.8 (12.1)
3. 문화·체육·관광	7.2	8.0	8.0	0.05	0.8	10.6
4. 환경	7.4	8.8	9.0	0.2	1.6	21.8
5. R&D	20.5	24.1	24.2	0.1	3.7	18.0
6. 산업·중소·에너지	18.8	23.9	23.7	-0.2	5.0	26.4
7. SOC	19.8	22.3	23.2	0.9	3.5	17.6
8. 농림·수산·식품	20.0	21.0	21.5	0.5	1.5	7.4
9. 국방	46.7	50.2	50.2	0.0	3.5	7.4
10. 외교·통일	5.1	5.5	5.5	-0.02	0.4	8.8
11. 공공질서·안전	20.1	20.9	20.8	-0.1	0.7	3.5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76.6 (24.1)	80.5 (28.2)	79.0 (26.8)	-1.5 (-1.4)	2.5 (2.7)	3.2 (11.2)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12.11.)



2020년의 재정 운용의 투자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 확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한 사회투자,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튼튼한 국방·외교이다.

표 3. 2020년도 재정투자 방향

(단위: 조원)

혁신성장 가속화 (15.7조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2.1
	D.N.A. 플랫폼+3대 핵심산업육성	4.8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	3.7
	제2 벤처붐 확산	5.2
경제활력 제고 (49.8조원)	수출·투자·관광 등 촉진	7.8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1.3
	균형발전, 생활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14.9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5.8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31.8조원)	촉진한 사회·고용·교육 안전망 구축	4.4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20.3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2.8
	주거·일자리 등 청년 희망 사다리 보강	4.3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14.0조원)	신기술 활용 스마트 인프라 확충	1.1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 인프라 보강	3.5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건강 투자 확대	9.4
튼튼한 국방·외교 (54.1조원)	스마트 정예군 육성 등 국방 역량 강화	50.2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마련	0.5
	공공외교·ODA 확대	3.4

자료 : 기획재정부,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

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

핵심기술 자립과 산업체질 혁신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투자인 혁신성장 분야는 Data, Network, AI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의 생태계 조성과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인재양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총 15.7조원이 편성되었다.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2.1조원이 편성되었는데 핵심기술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의 조기제품화를 위한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5천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펀드를 조성하고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2.1조원 규모로 설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Data, Network, AI 분야(D·N·A)에 1.7조원을 투입하여 5G 시대 및 AI 시대에 본격 대응하고자 하였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산업으로 요약되는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 발전 생태계 조성에도 3.1조원을 편성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AI 대학원 확대 및 대학교육 혁신 투자로 3.7조원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자체-대학 주도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신산업분야 전문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산학연 협력 고도화 사업 등이 그것이다.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되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모태펀드² 0.8조원 출자를 포함한 총 2.1조원의 모험 자금을 공급하고 스케일업 펀드³ 3.2조원을 공급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지원한다. 또한 민·관 협력으로 창업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사업과 유니콘 후보 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²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펀드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로 국내에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의미한다.

³ 성장잠재력을 가진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이다.

②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경제활력 제고 예산은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생활SOC와 같은 균형발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업으로 49.8조원이 투입된다.

수출과 투자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금융을 보강하고 해외 마케팅과 같은 수출을 총력지원하는 데 3.5조원을 확대하고 민간 설비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주요 관광명소에 5G 기반 VR, AR 콘텐츠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혁신 뒷받침을 위해 스마트 공장 5,500개를 보급 지원하고 스마트 산단 4개소를 조성한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돌봄 복합 시설과 같은 생활SOC에 총 10.5조원을 투자하고 SOC 중심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1% 늘린 25.5조원을 지원하는데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5만 개 확대 등이 그것이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 장애인 등과 같은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과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패키지 사업 등도 시행한다.

③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한 사회투자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분야는 사회·고용·교육의 3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과 혁신을 지원하는 투자 방향으로 총 31.8조원이 편성되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장애인 연금을 차상위 계층에 한해 현행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고교 무상교육의 2·3학년 확대 시행에 최초로 국고지원이 0.7조원 투입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투자에는 공공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초등돌봄과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돌봄사업 강화에도 투입



된다. 또한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계층에 월 25만원(하위 20%는 월 30만원)이 지급되던 기초연금에 소득 하위 40% 노인 계층으로 확대하여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투자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혁신과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제공과 저리 융자자금 공급에 2.3조원을 투입하고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및 성장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④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을 위한 투자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분야는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으로 스마트 인프라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건강 투자와 관련되어 총 14.0조원이 편성되었다.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형 첨단 교통체계(ITS)를 구축하는 등의 스마트 시티 구현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에 교통안전, 산재방지, 자살예방 등의 3대 프로젝트에 2.6조원을 투자한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4.0조원을 투입하여 국민 건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이행을 위한 국고지원도 1.1조원 증가한 총 9.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⑤ 튼튼한 국방·외교

마지막으로 국방·외교 분야는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등 국방 역량강화로 국방 예산이 최초로 50조원이 돌파되었으며 이는 군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한 봉급인상과 급식비 인상, 핵심 무기체계 보강 등에 쓰이게 된다. 외교 및 통일 분야에는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에 0.5조원이 투입되게 되며 ODA 사업은 국격에 걸맞게 신남방·신북방 전략투자 중심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증액되었다.





3 ————— 시사점

2020년도 예산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확장적, 적극적 재정운영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그 결과 202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2.7조원이 증가한 512.3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한 노력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통과한 2020년도 예산의 재정계획을 지난 12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는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62.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경기활성화와 관련이 높은 SOC 분야와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사업 등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SOC 분야와 일자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예산 배정을 통하여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한 집행 시차의 최소화로 경제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가 실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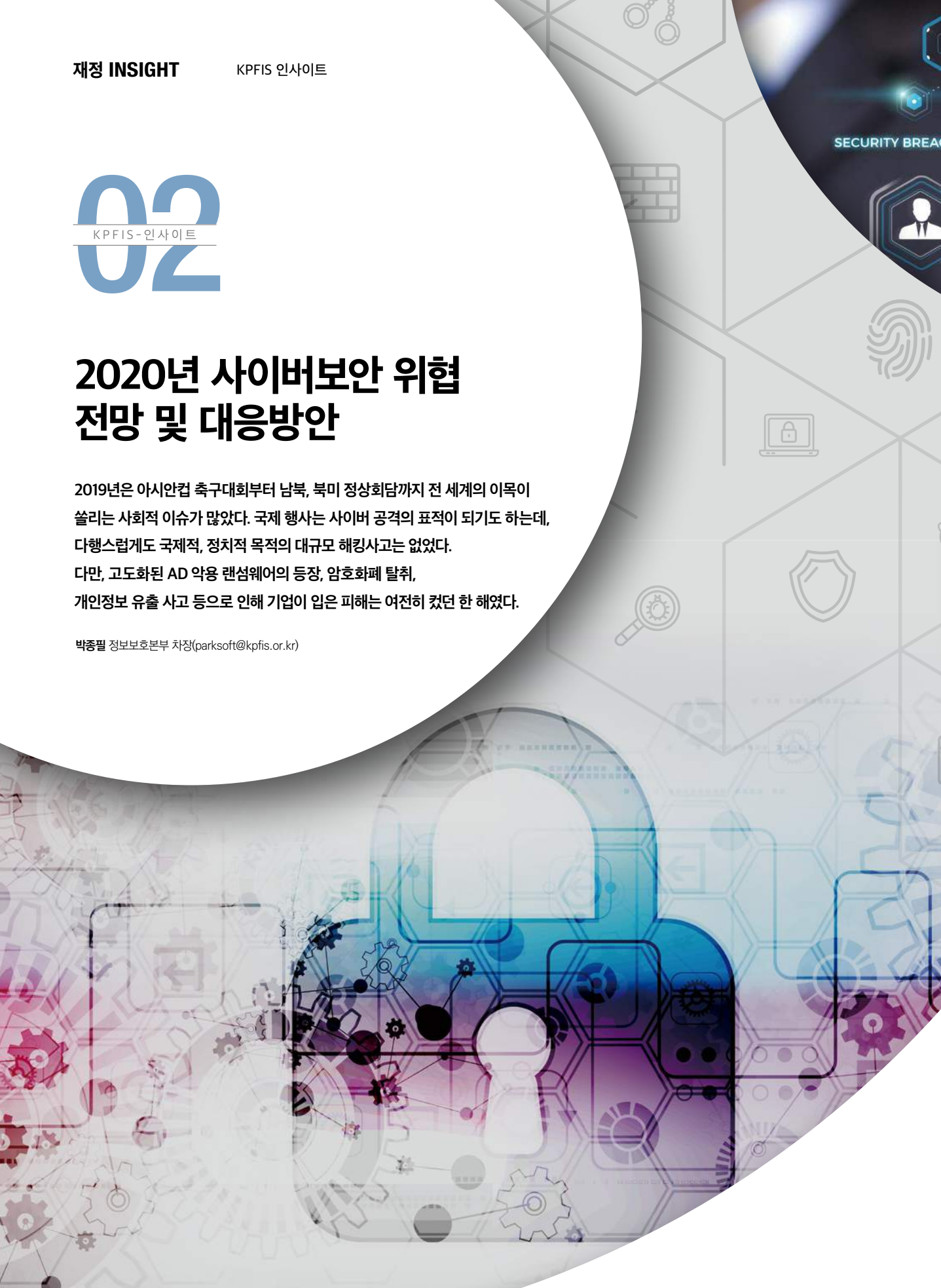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5%, 국가채무가 GDP 대비 39.8%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를 2023년까지 GDP 대비 -3% 후반 수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 수단을 고려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02
KPFIS-인사이트

2020년 사이버보안 위협 전망 및 대응방안

2019년은 아시안컵 축구대회부터 남북, 북미 정상회담까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사회적 이슈가 많았다. 국제 행사는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국제적, 정치적 목적의 대규모 해킹사고는 없었다. 다만, 고도화된 AD 악용 랜섬웨어의 등장, 암호화폐 탈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피해는 여전히 컸던 한 해였다.

박종필 정보보호본부 차장(parksoft@kpfis.or.kr)





2019년 한 해 동안 개인, 기업에 피해를 주는 해킹사고는 여전히 있었지만, 대규모의 국제적·정치적 해킹사고는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2019년 발생한 보안 이슈를 정리해보면 제조·유통기업 대상 AD(Active Directory) 취약점 악용 해킹사고 증가, 네트워크 연계 취약점 Hole을 악용한 대규모 악성코드 확산,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를 노린 공급망 공격, 컨테이너 취약점 기반 클라우드 공격,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공격 등이 있었다.

1 ————— 개요

해마다 연말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위협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는데, 지난 12월 5일에도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와 2020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랜섬웨어 공격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갈 것이며, 여전히 취약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대상 공격은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되고, 보안이 취약한 스마트 시티 등 융합 서비스를 노리는 새로운 공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IoT기기 대상 공격이 지능형 CCTV, AI 스피커 등으로 확산되고 지능형 표적 공격의 경우 정상 소프트웨어까지 보안 기능을 악용하거나 정상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세밀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그 의미와 함께 개인 또는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2020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2 7대 사이버 공격 전망

7대 전망에는 ① 일상 속으로 파고든 보안취약점, 보이지 않는 위협(KISA) ② 랜섬웨어, 개인에서 공공기관·기업으로 피해 확대(안랩) ③ 취약한 가상통화 거래소, 반복되는 해킹 사고(잉카인터넷) ④ 문자 메시지, 이메일 안으로 숨어드는 악성코드(하우리) ⑤ 은밀하게 정교하게, 진화하는 지능형 표적 공격(이스트시큐리티) ⑥ 모바일까지 확대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NSHC) ⑦ 융합 서비스를 노리는 새로운 보안 위협의 등장(빛스캔) 등이 포함됐다.

① 일상 속으로 파고든 보안취약점, 보이지 않는 위협

- ▶ 지능형 CCTV, AI 스피커 등 IoT¹ 결합 서비스 대상 사이버위협 증가
- ▶ 윈도우 RDP² 취약점(블루킵) 미패치 시스템을 노린 제2의 워너크라이 등장 우려
- ▶ 지원 중단 혹은 예정 운영체제(윈도우7/XP, 서버 2008/2003 등) 취약점 공격 시도

1. IoT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으로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이다.

2. RDP는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Remote Desktop Protocol)로 윈도우 시스템간 통신규칙이다.

지난해 5월 서울동부지법은 한 여성의 안방 CCTV를 해킹해 훑쳐본 외국인 강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사물인터넷협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IoT 산업 매출액이 8조 6,000억원 정도로 2015년 4조 6,000억원 대비 3년 만에 2배의 성장을 하고 있다. 집이나 회사의 전자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모바일로 조정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노출된 IoT기기는 기본설정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제품의 보안업데이트는 항상 실시하여야 한다.

2019년 상반기에 발견된 윈도우 RDP 취약점(블루킵³, CVE-2019-0708)은 2017년 워너크라이가 악용했던 SMB 취약점(이터널블루, CVE-2017-0144)처럼 악성코드 전파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인터넷에 노출된 장비 중 100만대 정도(2019년 5월 기준)가 이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공격자들이 이 취약점을 통해 시스템을 장악한 뒤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를 심었다는 사례가 처음 발견되었다. 블루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최신버전 윈도우로 업데이트하고 해당 RDP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접근제어를 설정해야 한다.

올해 1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7 및 서버 2008에 대한 보안업데이트 지원이 중단된다. 국내 PC의 1/4 정도가 취약하여 해커들의 표적이 될 전망이다. 대응방안은 윈도우 제품은 윈도우 10, 윈도우 서버 2012 이상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불가한 경우 리눅스 등 대체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으로 교체해야 한다.

② 랜섬웨어, 개인에서 공공기관·기업으로 피해 확대

- ▶ 공공기관·기업으로 사칭하여 APT와 결합된 랜섬웨어⁴ 유포
- ▶ APT와 결합된 랜섬웨어 공격, PC 공격보다 높은 금액 요구
- ▶ 랜섬웨어 감염 시 백업파일까지 암호화 및 피해 발생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파일을 감염시켜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이며, 1989년 이후로 꾸준히 발생해 랜섬웨어 공격은 점차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능적인 고도의 공격 수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기존의 개인 PC를 대상으로 한 공격에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APT 공격을 통해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려는 전망이다.

랜섬웨어 예방방법은 ① 백신을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³ 블루킵(Blue Keep)은 윈도우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를 이용해 정상적인 인증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원격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는 취약점이다.

⁴ Ransomware는 Ransom(몸값)과 Software(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사용자 동의 없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파일을 암호화시켜 인질로 잡고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②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과 URL 링크는 실행하지 않고 ③ 파일공유 사이트 등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에 주의하며 ④ 중요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해야 한다.

해커가 백업을 추적해 랜섬웨어 공격한 사례도 있다. 2018년 말 미국에서는 악성코드를 사용해 병원을 포함해 200여 피해자들로부터 3천만달러를 갈취한 이란 국적자 2명을 기소했는데 공격자는 정상영업시간을 피해 공격을 시작하고 피해자 컴퓨터의 백업을 암호화해 피해를 더 키웠다.

백업파일을 랜섬웨어로부터 보호하려면 ① 추가 사본과 서드파티 도구를 통한 윈도우 백업을 보강하고 ② 백업을 기존 시스템에서 분리하여 여러 장소에 사본을 유지해야 한다.

③ 취약한 가상통화 거래소, 반복되는 해킹사고

- ▶ 가상통화⁵ 탈취 및 가치 조작을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꾸준히 공격
- ▶ 가상통화 거래소 사칭 및 지갑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유포 증가
- ▶ 피해를 눈치채기 힘든 채굴형 악성코드의 지속적인 유포 및 감염 시도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가 최근 4년간 해킹사고로 1,2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해킹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가상통화도 탈취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경제적 피해추정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5건(아바존, 빗썸, 토인비즈 등) 316억원, 2018년 3건(코인레이, 빗썸, 올스타빗) 850억원, 2019년 1건(빗썸) 1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적으로 보면, 2019년 사이버 범죄자들이 디지털 화폐 거래소와 투자가들을 해킹해 벌어들인 순수익이 43억달러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블록체인 보안회사 사이퍼트레이스(Cipher Trace)에서 발표했다. 2019년 43억달러 수준의 손실이 생겼다고 한다. 2019년 1분기에 해커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1억 2,400만달러를 훔쳤으며 2019년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총 손실은 4억 8,000만달러가 넘는다.

가장 인기 있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BTC)에 대해 말하자면 사이버 범죄자들은 불법 마약, 무기 그리고 사이버 및 금융 신용증서 등을 사고팔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업체들도 가상화폐 인기가 줄어들면서 조직이 축소되고 담당자 부재, 회사 이전, 네트워크 구성 변경 등으로 인해 관리상 보안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업체들은 보

⁵ 가상통화는 암호화폐라고도 하는데 암호화폐 해킹(Cryptocurrency Hacking)이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어 해킹하는 것을 말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거나, 혹은 블록체인 자체의 취약점을 노린 해킹이 있다.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시스템도 분산되어 있어 보안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안시시스템 운영, 인터넷 차단, 접근 권한 관리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문자 메시지, 이메일 안으로 숨어드는 악성코드

- ▶ 문자 메시지, 이메일 속 링크를 이용하여 악성 앱을 감염시키는 모바일 표적 공격
- ▶ IoT 기기 보급 확산에 따른 대규모 IoT 봇넷 등장 및 DDoS 공격의 재개
- ▶ 유효한 코드서명 인증서 탈취 시도 및 이로 서명된 악성코드 유포·감염 증가

백신 업체인 이스트소프트가 2019년 모바일 백신을 통한 통계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월보다 10월에 탐지된 건수가 17만여 개로 400% 이상 급증했고 이용자 한 명당 월 최대 4개의 모바일 악성코드가 스마트폰 다운로드 폴더에서 탐지된 수치라고 한다.

특히, 안드로이드에 악성코드가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높은 시장 점유율, 안드로이드가 오픈소스로 개방성으로 인한 악성코드의 제작 및 유포가 쉬운 점, 쉬운 설치(APK) 때문인 것이다.

주요 감염경로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나 링크 클릭으로 발생한다. 대응방법으로는 스마트폰에는 반드시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다음의 5가지 보안수칙을 준수하면 그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

- ① 모바일 전용 보안 앱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주기적 검사 실시
- ② 기기 시스템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소스)’ 허용금지 설정
- ③ 공용와이파이 이용 시 자동 다운로드되는 APK 파일 실행하지 않기
- ④ 출처가 불분명한 앱 다운로드 또는 실행금지
- ⑤ 문자 또는 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 금지

⑤ 은밀하게 정교하게, 진화하는 지능형 표적 공격

- ▶ 견적 의뢰서, 보도자료 등 정상 문서 파일을 위·변조한 스피어 피싱⁶의 정교화
- ▶ 문서 소프트웨어의 자체 보안 기능을 통한 보안 위협 탐지 시스템 회피 증가
- ▶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슬랙 등의 정상 서비스를 활용한 악성코드 통신 기법 활용

지난해에는 외교·안보 관련 분야 종사자만을 표적화해 발송된 스피어 피싱 이메일 공격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해당 공격은 특히 hwp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파일 암호 설정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이메일 수신자의 신뢰를 얻는 목적 외에도, 암호를 알기 전 소스코드 분석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보안 프로그램의 파일 악성 여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도 분석되었다.

⁶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이란 작살낚시에 빗댄 표현으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내부직원을 표적 삼아 집중적으로 이메일 등으로 공격하는 행위이다.



대응기술 및 인간 통제를 통해 스피어 피싱의 위협을 완화할 수 있다. 스팸 필터, 악성코드 탐지, 안티바이러스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 통제하고 모의훈련, 사용자 교육, 사용자가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읽지 말고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①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뭔가를 클릭하기 전에 항상 이메일 링크의 URL 확인 ② 같은 디자인의 다른 웹사이트로 슬쩍 넘어가는 URL 리디렉션에 주의 ③ 아는 사람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지만, 수상해 보인다면 회신을 클릭하지 말고 새 이메일로 그 사람에게 연락 ④ 생일, 휴가 계획 또는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데이터를 소셜 미디어에 공개적으로 게시 금지

⑥ 모바일까지 확대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 ▶ 모바일 앱, 스마트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확대
- ▶ 스마트카, 의료기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 악성코드 삽입을 노리는 공격 시도
- ▶ 소프트웨어의 특정 사용자만을 선별하여 감염된 악성코드를 실행하는 표적 공격

공급망 공격이란 정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배포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업데이트 서버나 개발자 PC 등에 침투해 소프트웨어를 변조, 악성코드를 유입하는 해킹 기법이다. 한 번에 수많은 PC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 파괴력이 크다.

지난해 3월, 대만 PC 공급사인 ASUS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이 해킹당하면서 공급망 공격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해킹으로 전 세계적으로 총 100만대 이상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① 인증서 및 개발 시스템 보안 관리 ② 업데이트 체계 관리 ③ 침해 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이 공격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악성코드가 유입되므로 시스템 담당자나 보안담당자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

⑦ 융합 서비스를 노리는 새로운 보안 위협의 등장

- ▶ 교통 시스템 해킹을 통한 교통 마비와 CCTV 무력화와 같은 스마트 시티 보안위협 등장
- ▶ 스마트 공장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전파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성코드
- ▶ 의료 시스템 해킹을 통한 환자 개인정보·처방전 데이터 유출 및 의료기기 오작동 유발

대표적인 융합 서비스에는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있다. 사례를 보면, 2019년 3월 스마트 공장으로 운영되는 노르웨이의 세계 최대 알루미늄 제조사인 노르스크 아이드로사는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처리공정을 수동으로 변경하는 등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회사는 4백만달러의 손실과 전 세계 알루미늄값이 1.2% 오르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인간의 생명과 직접 영향이 있는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2019년 3월 미국 ICS-CERT에서

심장박동기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하였는데, 근거리 액세스 권한을 가진 공격자가 원격 측정시스템의 RF 통신을 방해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감한 의료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융합 서비스에 대한 보안위협에 대응으로 정보보안과 물리 보안을 합친 융합보안⁷ 기술로 대응하고 있다.

각 융합서비스는 인터넷과의 망 분리, 철저한 권한 관리를 통한 접근관리, 정보보안 장비를 도입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시 보안패치, 암호화를 통한 데이터 보호와 이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해당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원격통신 및 제어를 위해서는 표준화되어 보안성이 인증된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상용화된 5G 기술은 초고속·초지연성·초연결 핵심기술을 통하여 혁신적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_____ 결론

2020년 보안위협의 키워드는 ‘랜섬웨어’, ‘암호화폐’, ‘해킹메일/스미싱’, ‘공급망 공격’, ‘융합서비스 위협’이다. 전에도 있었던 공격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좀 더 정교해질 것이고 ICT 기술을 혁신적 발전과 더불어 이에 대한 고도화된 위협 또한 증가할 것이다.

해킹, 해커는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얼마 전 게재된 “다크웹⁸의 범죄자 한 달 수익이 최고 1억원 넘기도”라는 기사를 보면 사이버 범죄시장 전체 규모를 대략 1조 5천억달러에 이른다는 결론에서 계산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유혹과 정치적 목적이 있는 한 해커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해커는 우리가 방심한 틈을 항상 노리고 있다. 그 방심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중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런 위협은 개인 또는 일부 조직에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어 조직적인 체계와 인력양성을 통하여 민관이 협업을 통하여 공동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인터넷진흥원,
2020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2019.12.5.)
- 인터넷진흥원,
융합서비스
보안위협 및 대응방안
(2019.6.24.)

⁷ 융합보안(Convergence Security)이란 정보보안과 물리 보안 간의 융합 또는 보안기술이 비 IT기술 및 산업과 융복합되어 창출되는 보안제품 및 서비스이다.

⁸ 다크웹(Dark Web)은 불법적인 것으로 가득 찬 곳으로 IP추적, 검열을 피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어 마약, 권총, 음란물, 개인정보 등이 거래되고 있다.

①

2020년 재정운영의 방향과 과제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한국행정학회 회장(leewonhee0107@naver.com)



2020년도 예산이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에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12월 27일에는 예산부수법안도 국회 의결을 통과하면서 시계(視界) 제로의 2020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되었다. 법정 기한을 넘긴 예산 심의, 관련 법안보다 예산안이 먼저 통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 야당이 배제된 채 '4+1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이기에 정치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제 512조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행정부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2020년 예산은 확장 재정 정책의 문재인 정부 기조 연장에 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 증가율이 2018년 7.1%, 2019년 9.5% 그리고 2020년에는 9.1%이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연평균 증가율 6.6%, 박근혜 정부의 평균 연평균 증가율 4.4%에 비하면 거의 2배 수준이다. 여기에 매년 추경으로 2017년에 11.6조원, 2018년에 22.6조원, 2019년에 42.7조원이 편성되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재정이 증가하려면 당연히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유발된다. 2020년에 60조 2천억원의 국채 발행을 전제로 편성된 이유이다. 경제는 빈곤한데 재정은 풍부한 시기가 되었다. 재정건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근거이다. 과거 농업국가 시대에 국고는 경제의 종속변수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본격화 되면서 재정은 경제를 조정하는 독립변수가 되었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민간 소비도 움츠리고 수출도 원활하지 못해 국민경제가 침체될 기미가 보이면,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국민경제를 부양하는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문제는 재정지출의 구성과 수준과 그리고 증가 속도이다.

2019년에 예산안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복지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2.8% 증가하고,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 예산 중에서도 특히 법으로 자격을 정하고 이에 합당하면 무조건 지출이 수반되는 자격급여(Entitlement Expenditure) 성격이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 국민기초생활보장(2000), 기초노령연금(2008) 제도 등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도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 3대 비급여(선택 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013), 기초연금 도입(2014) 및 장애연금 확대(20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2015), 아동수당 도입(2018) 등 복지 제도가 숨 가쁘게 도입되고 있다. 포용성장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속도와 감당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특정 의무지출을 확대하려고 하면 기존의 의무지출 항목을 축소하거나 재원 확보 방안을 같이 마련하도록 하는 미국식 pay-go 방식을 도입하려고 2016년에 「재정건전화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 사회의 진행에 따라 노인 관련 복지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R&D 확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각국이 수입을 규제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국제 무역질서가 개편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수출통제혁신법」(Export Control Reform Act)을 제정하여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일본은 2019년 7월에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하였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미래 산업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 이에 R&D 투자가 17.3% 증가하고 있다. 전통 제조업 산업 구조를 새로운 경제 환경으로 전환(Transformation)하여 우리의 경제와 사회 체질을 바

꾸는 지난(至難)한 노력을 알리는 신호이다. 그러나 R&D 영역은 자칫 전문가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일부 도덕적 해이로 인해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다. 증가 속도에 비례하여 지원의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일상생활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5G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 문화의 콘텐츠 변화를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 자율 주행 차량이 일상화되면 차 안에서의 문화생활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한류 기반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9.9% 증가하는 이유이다. 다만 이러한 분야에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국민적 관점의 성과 관리는 필요하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지역 개발, SOC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지역 균형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접근도 시도해 볼 만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가 있는 ‘지역협약’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2020년도 예산을 보면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한다. 예산이 통과되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핵심은 대폭 증가된 예산 사업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의 쟁점으로 귀결된다.

첫째,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KDI에서 비용과 편익의 추계를 통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예산 사업을 숙성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면제 사업을 설정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23개 사업, 24조 1천억원을 선정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공공인프라 확보를 위한 타당성 확보에 애로를 겪는데, 이를 통해 공공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인구가 유출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 민원 사업 해소용이라는 지적도 있고, 지역 간 나눠먹기식 배분이라는 비판에 직면 하기도 했다. 집행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둘째, 생활형SOC 집행에 대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도로, 철도와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을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토목 국가를 지양한다고 누차 강조하여 왔다. 그런데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에서 큰 도로를 건설했는데 자동차가 다니지 않으니 개구리 놀이터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인구 소멸 현상에 비추어 자칫 과잉 공





급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 지역 간 협력 등을 통해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관리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권력에 근거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방지되기 쉽다. 예산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재정 당국은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프로그램 단위의 효과성 관리가 필요하다. 반면 개별 부처에서는 자체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문제점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의 보완을 통해 성과 평가를 강제하고 이에 따른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와인과 소시지는 만드는 과정은 알리고 하지 말고 결과만 즐기라고 한다. 이제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2019년 정기 국회의 예산 결정과정은 책임 소재를 떠나 한국 정치사에서 최악이었다. 과거 민주화가 되기 전에 예산은 정치 협상의 볼모로 잡혀 예산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의 논리에 희생되어 날치기의 오명을 받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에 예산은 여전히 재정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512조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과정의 오점은 있었으나, 결과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간 열린 정부, 투명한 정부 그리고 정부 혁신을 추진해 온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기획재정부는 결정의 미학이 아니라, 집행의 미학을 보여주어야 한다. 물먹는 하마는 습기를 조절하여 건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한다. 그러나 돈 먹는 하마는 경제의 건조화를 초래한다. 재정건전화를 통해 한국의 국가 신뢰도를 지탱해 온 재정 당국의 관리 능력을 기대한다.

②

정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평가와 과제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hongjongho@snu.ac.kr)



2019년 한국경제는 적지 않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 시달렸다. 대외적으로는 일본발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유럽 경기침체가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구조에 영향을 주었다. 대내적으로는 고용과 내수 부진, 시중 유휴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으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응하여 경제학계에서는 국제무역 및 통상, 노동, 금융, 그리고 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술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2019년도 재정운용의 큰 그림으로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 9.5%,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37.6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재정운용 기조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정부 재정계획 사상 최초로 올해 총지출



500조원 시대를 맞게 되었다. 당연히 재정학계의 관심과 논쟁은 적자재정 편성을 통한 확장 재정운용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모아졌다.

필자는 지난 1년간 재정학계가 주관하는 여러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분석과 주장을 경청할 기회가 있었다.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재정학자들의 시각을 대별하자면 '확장재정정책론'과 '재정건전성론'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어느 경제학자도 한쪽만을 일방적이고 극단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전자의 주요 주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포용적 복지사회 기반구축(저출산·고령화 및 소득불평등 문제 해소)을 위한 확장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 2)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부족한 여건 하에서 내수 진작과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3) 성장잠재력 하락 고착화 이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당분간 지속적인 확장 재정정책 (이는 향후 5년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
- 4)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재정지출 규모가 작고, 이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양호하며 상대적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
- 5)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한다.

반면 후자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 1) 경기하락에 따라 재정수입은 둔화하고 있으나, 재정지출은 급증하고 있다(소위 '악어의 입' 현실화).
- 2)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의 경직성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경기부양을 위한 SOC 지출 역시 증가하고 있다.
- 3) 2020년 이후 매년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재정운용 편성 등,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지속될 것이다.
- 4) 세수 확보를 위한 의지나 노력 없이 지출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
- 5) 정부 곳간을 튼튼히 하는 재정건전성이야말로 국가경제 최후의 보루임을 망각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재정정책을 둘러싼 학계의 논쟁은 대체로 생산적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재정 확대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에 대한 근거가 적지 않게 개진됐다. 한편 확장 일변도의 지출 증가에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정책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역시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었다.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은 재정 확대는 미래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필자는 현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현재의 국내외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 거시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며 제대로 사용한다면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2) 높은 국가채무 증가율은 향후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응하는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 3) 미시 관점에서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과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복지수준과
우리나라의 재정여력 제약을 균형 있게 고려한 최적 복지재정 규모에
진지한 논의와 함께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확장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학계의 논쟁과정에서 “재정을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투입해야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거시재정 차원의 효과와 문제점에 집중하면서 미시재정 관점의 재정성과는 간과한 탓이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확장 재정정책론자와 재정 건전성론자를 막론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신사업 발굴과 예산제도 개혁, 사전·사후 평가 시스템 강화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다는 사실이다.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복지수준과 우리나라의 재정여력 제약을 균형 있게 고려한 최적 복지재정 규모에 진지한 논의와 함께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현실로 닥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한국경제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찾기 위한 정부와 재정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지구적인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성장동력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얻기 위한 ‘녹색뉴딜’을 모색해야 한다. 재정학자는 물론, 한국 경제학계가 함께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과업이다.

정부는 작년 초 20조원에 달하는 SOC 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낙후지역 발

전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인지, 경제성 확보를 위한 대안은 무엇일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졸속 결정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무리수가 쌓이게 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낮아지게 된다.

확대 재정운용을 향한 현 정부의 노선은 분명해 보인다. 경제정책의 실효성은 정책을 바라보는 소비자나 기업과 국민의 대정부 신뢰에 기반하고 있음은 불문가지다. 재정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 사업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서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라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2020년 국가재정 500조원 시대를 맞아 재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한다.





툭아보다 :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2020년 예산의 주요 내용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작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 의결·확정함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조원(1.2%) 증가

GDP 대비 -3.5%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9조원 악화

총수입
481.8조원

관리재정수지
71.5조원 적자

총지출
512.3조원

국가채무
805.2조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7조원(9.1%)
추경예산 대비
36.9조원(7.8%) 증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4조원 증가
추경예산 대비
73.7조원 증가



16대 분야별 증감 내역

(단위: 조원, %)

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A)	2020년 본예산(B)	증감(B-A)	
				증감	증감률
1. 일반·지방행정	76.6	80.5	79.0	-1.5	-1.9
2. 공공질서 및 안전	20.1	20.9	20.8	-0.1	-0.5
3. 통일·외교	5.1	5.5	5.5	0.0	0.0
4. 국방	45.3	48.7	48.7	0.0	0.0
5. 교육	70.6	72.5	72.6	0.2	0.1
6. 문화 및 관광	7.2	8.0	8.0	0.0	0.0
7. 환경	7.4	8.8	9.0	0.2	2.3
8. 사회복지	148.9	168.0	167.0	-1.0	-0.6
9. 보건	12.1	13.5	13.5	0.0	0.0
10. 농림수산	20.0	21.0	21.5	0.5	2.4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8.8	23.9	23.7	-0.2	-0.8
12. 교통 및 물류	15.7	18.4	19.2	0.8	4.3
13. 통신	7.3	7.8	7.9	0.0	1.3
14. 국토 및 지역개발	4.1	3.9	4.0	0.1	2.6
15. 과학기술	7.3	8.2	8.2	0.0	0.0
16. 예비비	3.0	3.7	3.4	-0.3	-8.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중점투자방향



혁신성장 가속화



-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 DNA 플랫폼 + 3대 핵심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양성
- 제2 벤처붐 확산

경제활력 제고



- 수출·투자·관광 등 촉진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균형발전, 생활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 촘촘한 사회·고용·교육 안전망 구축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주거·일자리 등 청년 희망사다리 보강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 신기술 활용 스마트 인프라 확충
- 노후시설 개량 등 안전 인프라 보강
-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건강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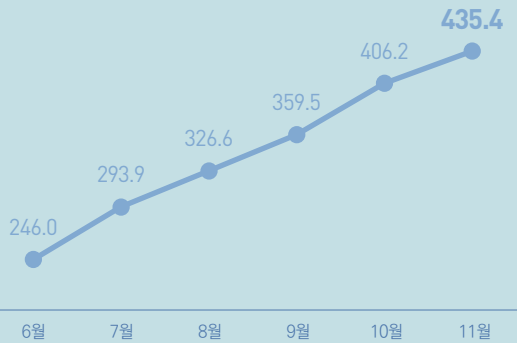
튼튼한 국방·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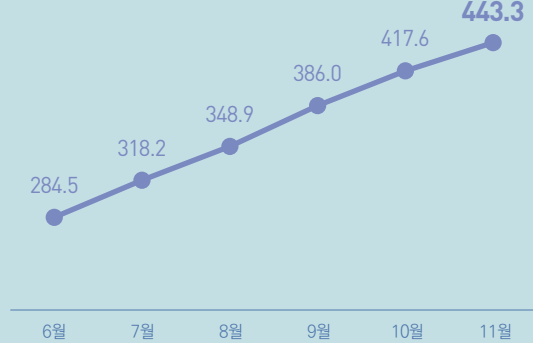
- 스마트 정예군 육성 등 국방 역량 강화
- 한반도 평화경제 기반 마련
- 공공외교·ODA 확대



총수입 **435.4**조원



총지출 **443.3**조원



통합재정수지

7.9조원 적자 (누적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수치

전월 대비

3.5

조원 개선

관리재정수지

45.6조원 적자 (누적 기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수치

전월 대비

0.2

조원 악화

국가채무

704.5조원 (누적 기준)



중앙정부
채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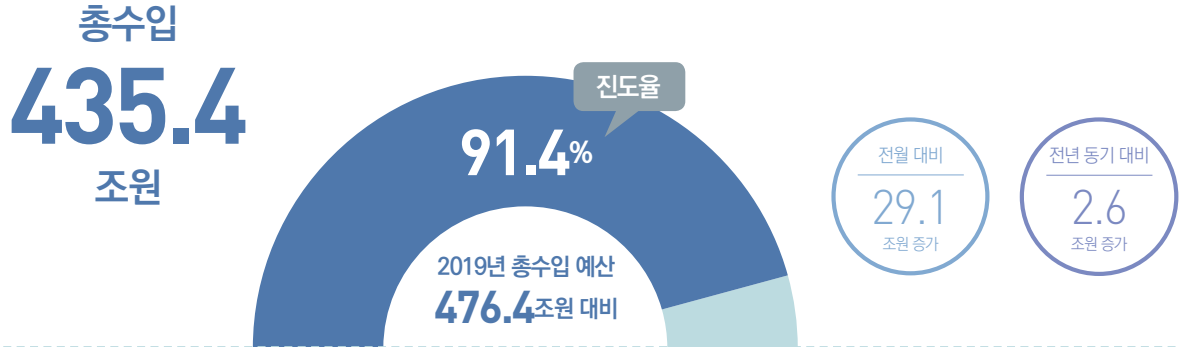
전월 대비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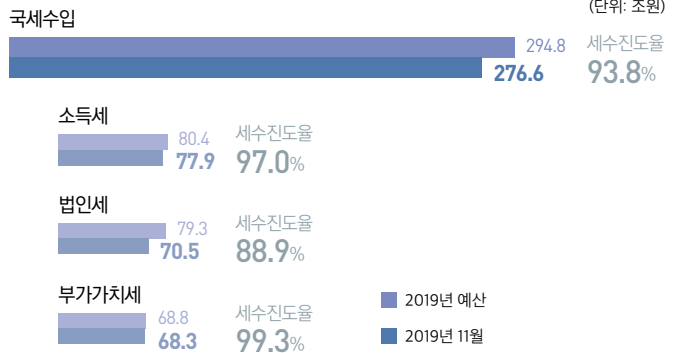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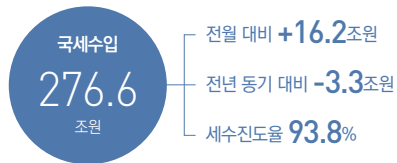
조원 증가

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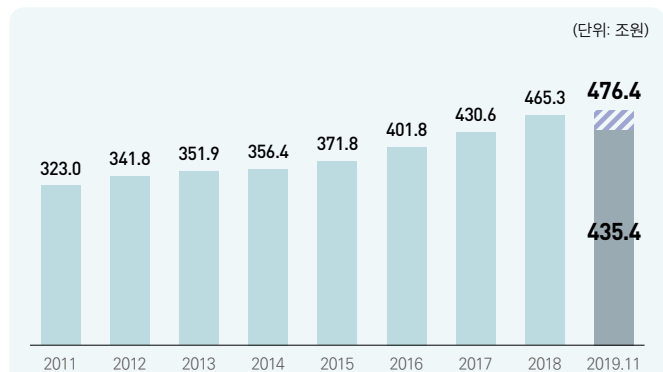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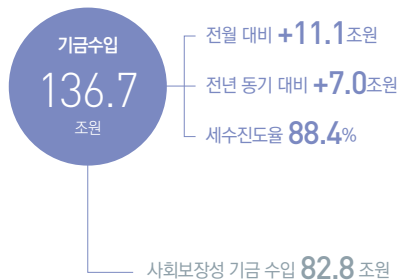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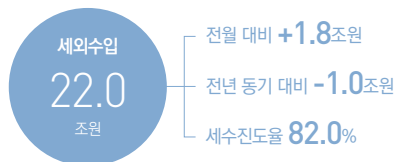
• 2019년 11월 말 기준



주: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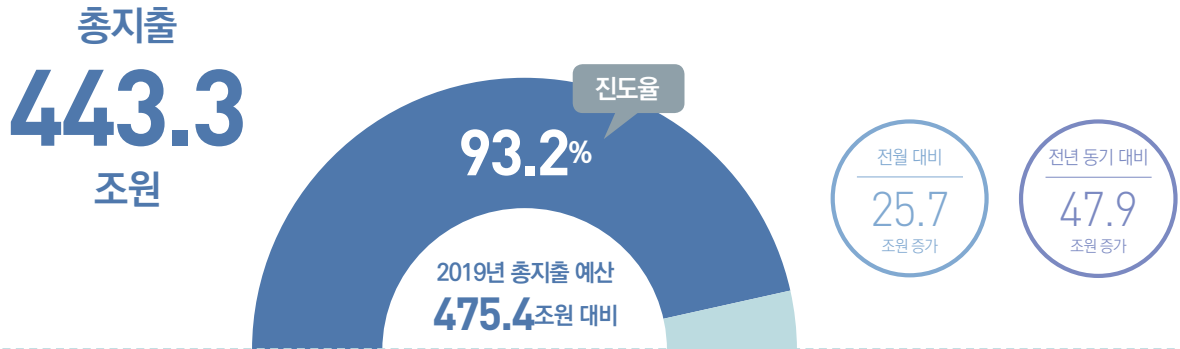


주: 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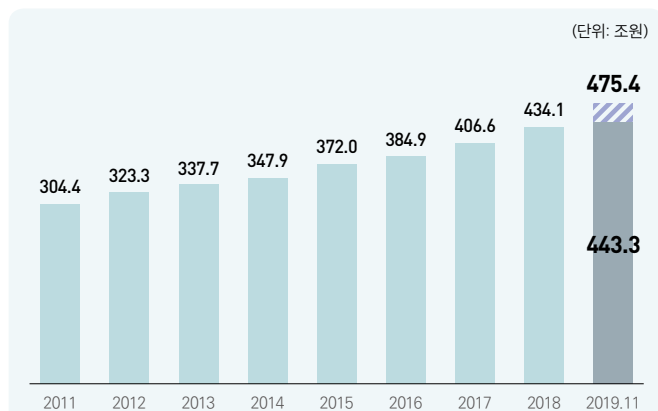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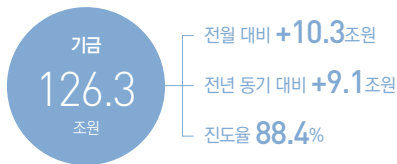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총 지출

• 2019년 11월 말 기준



주: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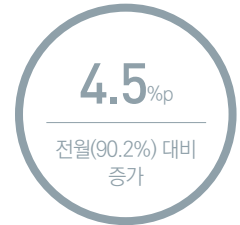
주: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중앙부처 집행률

연간계획 대비 **94.7%**



(단위: 조원, %)

	연간계획(A)	11월 실적(B)	집행률(B/A)
합 계	291.9	276.4	94.7
중앙부처	252.6	237.9	94.2
• 예산	208.9	195.5	93.6
• 기금	43.7	42.5	97.1
공공기관	39.3	38.5	98.0

(단위: 조원, %)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부처명	11월 실적	집행률
1	보건복지부	21.7	100.6
2	금융위원회	0.8	99.9
3	교육부	57.0	98.7
4	중소벤처기업부	9.4	98.6
5	고용노동부	3.7	98.5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 2019년 11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

7.9조원 적자

전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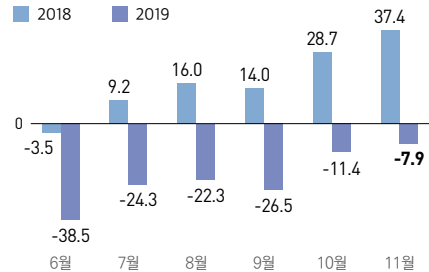
3.5

조원 개선

전년 동기 대비

45.3

조원 악화



관리재정수지

45.6조원 적자

전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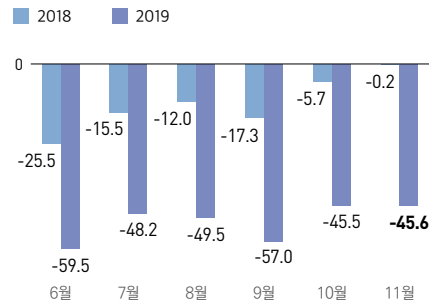
0.2

조원 악화

전년 동기 대비

45.5

조원 악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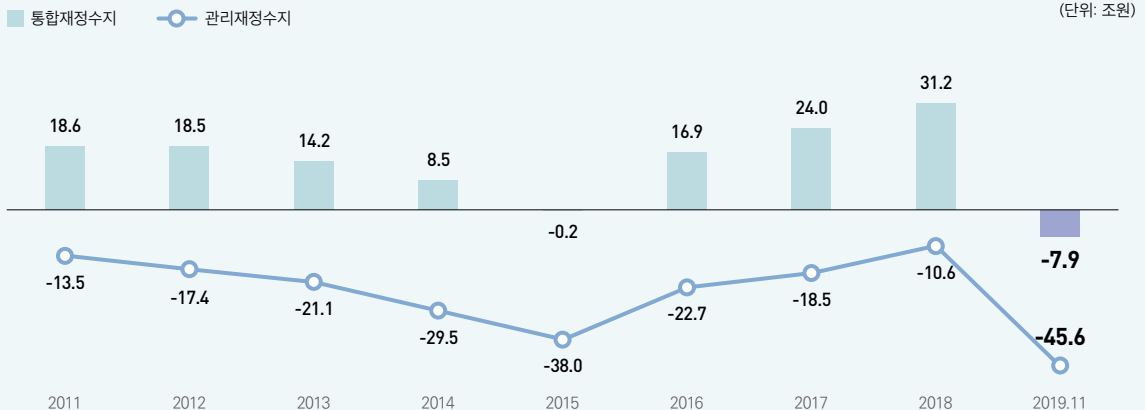
37.7조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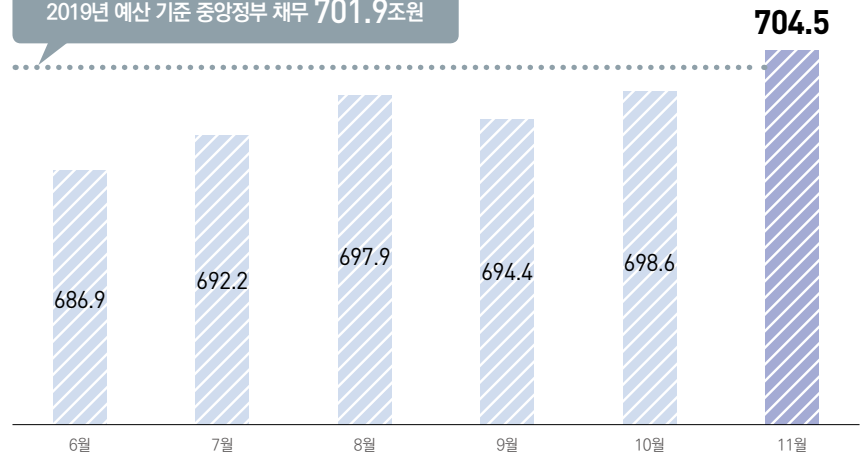
국 가 채 무

• 2019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704.5조원

2019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701.9조원



전월 대비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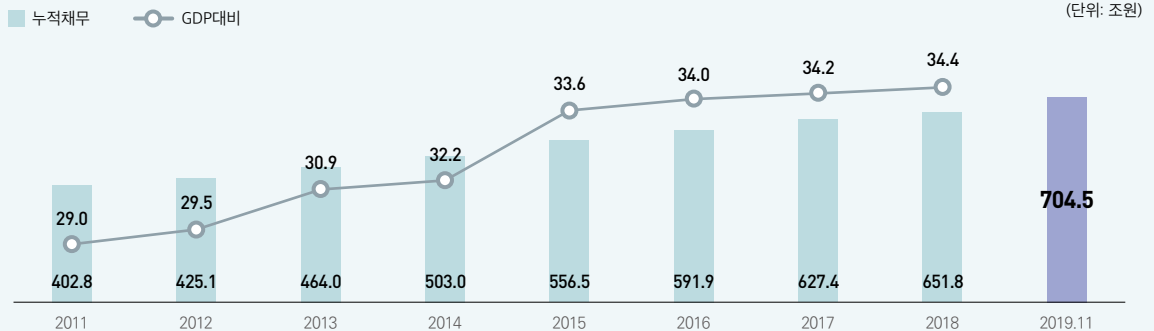
조원 증가

전년 동기 대비

52.8

조원 증가

주: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함(2018년 국가채무는 680.5조원이며, 그중 지방정부 채무는 32.7조원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반영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국가채무

이번호에서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국가채무'에 관해 「열린재정」에서 어떤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

국가채무 추이

알기 쉬운 재정 > 한눈에 보는 재정 > 우리나라 재정 현황 > 중앙재정 > 채무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국가채무 추이

국가채무 추이는 알기 쉬운 재정의 한눈에 보는 재정과 테마통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재정 > 한눈에 보는 재정 > 우리나라 재정 현황 > 중앙재정 > 채무’ 화면에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결산 기준 국가채무액과 GDP 대비 비중의 추이와 함께 중앙정부채무와 국채(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평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데이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국가채무 추이’ 화면에서도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동일한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열린재정에서는 국가채무의 2018년 결산기준 데이터가 제공되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 주요 내용)에 따른 2019년과 2020년 국가채무는 각각 731.5조원, 805.2조원입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현황



우리나라 정부(중앙·지방·지방교육)의 연도별 재정 추이와 자료를 그래프 등으로 제공합니다.

중앙재정

개요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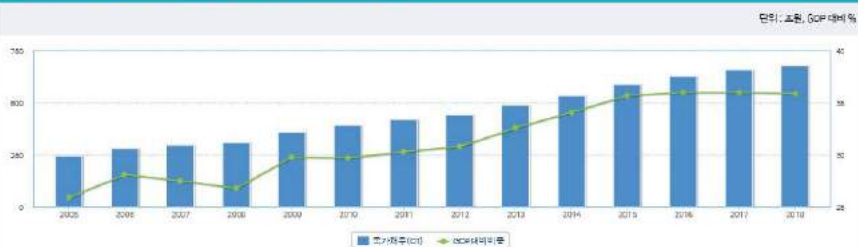
지출

수지

채무

국가채무 * 2000년 이후 자료에 대해 한국은행 산재금 GDP 기준 환원('19년 -> '15년)

마스크자랑



국가채무 * 2000년 이후 자료에 대해 한국은행 산재금 GDP 기준 환원('19년 -> '15년)

마스크자랑

단위: 조원

연도	국가채무 (A+B)	국가채무 GDP대비(B%)	중앙정부채무 (A, a+b+c)	국채				차입금 (d)	국고채무 부담행위 (e)	세입정부 순채무(f)
				합계 (g)	국고채권	국민주택 채권	외평채권 (외환)			
2006	282.7	28.1	273.2	264.3	206.8	62.9	14.7	6.4	2.5	9.5
2007	299.2	27.5	289.1	280.5	227.4	43.3	9.7	5.7	2.9	10.1
2008	309	25.8	297.9	289.4	239.3	44.9	5.2	5.3	3.2	1.1
2009	359.6	29.8	345.1	337.5	280.9	48.3	8.4	5.4	3.2	13.5
2010	392.2	29.7	373.8	367.2	310.1	49	8	3.5	3.1	18.4
2011	420.5	30.3	402.8	397.1	340.1	48.9	8.1	2.5	3.3	17.6
2012	443.1	30.8	425.1	420	362.9	48.5	7.6	2.3	2.8	18

(단위: 조원)

2

국가채무 상세통계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 DB > 채무 > 월별 국가채무 / 국가채무(D1) /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 보증채무 현황 / 월별 보증채무 현황

국가채무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는 재정통계의 상세재정통계DB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재정통계 DB 화면에서는 국가채무(1997년~2018년), 일반정부 부채(2011년~2017년), 공공부문 부채(2011년~2017년), 보증채무(2008년~2018년)에 대한 연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월별 국가채무(2014년 1월~2019년 11월)와 월별 보증채무(2014년 1월~2019년 11월)를 통해 월별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국가채무 총계, GDP 대비 비중, 중앙정부채무, 국채 합계,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평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는 부채액과 GDP 대비 비중, 비금융공기업부채와 GDP 대비 비중, 일반정부-공기업간 내부거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채무는 보증채무 총액과 GDP 대비 비중, 예보채상환기금채권, 장학재단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수리자금, 국내은행 외화표시채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각 화면의 우측상단에 위치한 ‘메타정보열기’를 클릭하시면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보증채무에 대한 정의, 포괄범위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D1) [메타정보열기]

SHEET CHART OPEN API

기준년도 선택

조회

※ 열람권은 클릭하면 데이터 장영이 가능합니다. (※ 오른쪽은 / 누르면 자손)

No	기준년도	국가채무총액(조원)	국가채무 GDP대비(%)	중앙정부채무(조원)	국채 합계(조원)	국고채권(조원)	국민주택채권(조원)	외평채권(조원)	차입금(조원)	국고채무부
1	2018	680.9	35.9	601.8	648.4	957	73.3	8	5.2	
2	2017	680.7	36	677.4	673.3	546.7	69.4	7.7	5.8	
3	2016	626.9	36	591.9	587.5	516.9	6.4	6.7	3.9	
4	2015	591.5	35.7	555.5	551.5	485.1	59.3	7.1	3.3	
5	2014	533.2	34.1	503	498.1	438.3	52.8	7	2.6	
6	2013	489.8	32.6	464	459.5	400.7	51.3	7.5	1.9	
7	2012	443.1	30.8	425.1	420	362.9	49.5	7.6	2.3	
8	2011	420.5	30.3	402.8	397.1	340.1	48.9	8.1	2.5	
9	2010	392.2	29.7	373.8	367.2	310.1	40	8	3.5	
10	2009	359.6	29.8	345.1	337.5	280.9	48.3	8.4	5.4	
11	2008	309	26.8	297.9	289.4	239.3	44.9	5.2	5.3	
12	2007	299.2	27.5	289.1	280.5	227.4	43.3	9.7	5.7	
13	2006	282.7	28.1	273.2	264.3	206.8	47.9	14.7	6.4	
14	2005	247.9	26.9	238.8	229	170.5	37.1	21.4	7.5	
15	2004	203.7	22.4	195.1	182.9	123.1	32.4	27.5	10.7	
16	2003	165.0	19.8	150.8	140.6	81.5	30.1	20.5	15.8	
17	2002	133.8	17	125.6	103.1	55.6	25.7	20.7	20.7	
18	2001	171.8	17.7	113.1	87.8	50.9	20.6	5.4	27.5	

[19/20]

4 —————

국가채무 관련 각종 정보

국가채무(중앙정부) 최근 데이터 → 재정통계 > 주요재정통계(주요지표별)

인포그래픽 →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알기 쉬운 개념설명 > 국가채무

도표 →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부채

웹툰 →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부채

법령 → 재정자료실 > 재정법령

정부 보도자료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국가채무의 최신 데이터는 ‘재정통계 > 주요재정통계(주요지표별)’에서 매월 업데이트되는 총계,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포 그래픽은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재정건전성 주요지표 > 알기 쉬운 개념설명 > 국가채무’에서, 정리된 도표와 웹툰은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채무 > 부채’,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채무 > 부채’에서 각각 확인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법령은 ‘재정자료실 > 재정법령’에서 ‘보도자료’는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재정통계(주요지표별)

매월과 전연합 5년치 주요 지표를 제공합니다.
- 각 지표를 클릭하면 상세 설명과 통계자료도 제공됩니다.

구분	단위	2023.12.31	2023.12.31	2023.12.31	2023.12.31
총채무	조	626,900	626,900	626,900	626,900
국채	조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차입금	조	426,900	426,900	426,900	426,900
국고채무	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국고채무부담행위	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국가채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국가채무란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차입한 돈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의 부채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는 국가채무이며,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채로 구분됩니다. 부채의 원인을 살펴보면, 예산결산,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가채무 626.9조원
국채 200조원
차입금 426.9조원
국고채무 100조원

재정법령

법령 목록

법령명	제정일자	제정기관	제정일자	제정기관
국채법	1980.12.31	국무회의	1980.12.31	국무회의
국고채무법	1980.12.31	국무회의	1980.12.31	국무회의

보도자료

보도자료 목록

제목	발행일자	발행기관	발행일자	발행기관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개선 기대	2023.12.31	국무회의	2023.12.31	국무회의
국고채무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개선 기대	2023.12.31	국무회의	2023.12.31	국무회의

부채

부채 관련 정보

부채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차입한 돈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부채의 원인을 살펴보면, 예산결산,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나라살림**,
열린재정에서 확인하세요!

열린재정



열린 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이란?

국가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입니다.

열린재정은,
일반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
전문 연구자를 위한 깊이 있는 상세 정보,
내게 맞는 정보를 찾아보는 맞춤형 정보 등
다양한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성차별'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가 여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국민의 호응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이달의 이슈키워드

성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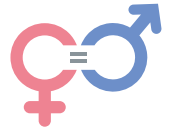


키워드

성차별	수능
대입시험	집회
공수처	바다
집회	개혁
젠더폭력	청소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지소미아	공무원
성폭력	소방인력
음주운전	채용시험
국가직	임금격차

연관어

여성	임신
성추행	임금
환경	아동
호주	고용
남성	결혼
채용	군대
대우	가정
페미니즘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Gender)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의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은 아직도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에서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¹⁾.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인권 보호 등에 대한 정책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에 여성가족부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사회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당찬 포부를 펼칠 수 있는 사회, 세상 모든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 사회의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도 주요 사업

2020년 여성가족부는 2019년(1조 475억원) 대비 476억원(4.54%) 증가한 1조 950억원을 편성하였다. 프로그램별 증감을 살펴보면, 여성·아동인권보호 및 가족지원은 7,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0% 증가하였으며,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일반은 7.28% 증가한 134억원,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755억원으로 4.80% 증가하였다. 반면,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는 16.67% 감소한 2,323억원이다.

2020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율)
여성가족부	10,475 [100.00]	10,950 [100.00]	476 [4.54]
여성·아동인권보호 및 가족지원	6,587 [0.63]	7,470 [0.68]	882 [13.40]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일반	125 [0.01]	134 [0.01]	9 [7.28]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720 [0.07]	755 [0.07]	35 [4.80]
여성가족부행정지원	255 [0.02]	269 [0.02]	14 [5.64]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2,788 [0.27]	2,323 [0.21]	-465 [-16.67]

주: 괄호 안은 비중

자료: 열린재정, 「2020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여성·아동인권보호 및 가족지원

2020년 여성·아동인권보호 및 가족지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이돌봄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 가족센터 설립 등이 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²에 대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50.3%에서 2018년 52.9%로 2.6%p 증가하였으나, 성별임금격차는 2013년 36.6%에서 2018년 37.1%로 큰 차이가 없다.

²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의미한다.

여성·아동인권 보호 및 가족지원 주요사업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69	2,544
아이돌봄지원	2,246	2,440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	887	885
가족센터 설립	250	365

자료: 열린재정, 「2020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일반

2020년 여성가족청소년일반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으로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여성가족부 정보화추진, 여성·가족정책의식 확산, 국제개발협력(ODA) 등이 있다.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사업은 유엔 여성기구(UN Women)에 기여금 공여로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역량강화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 이슈 관련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유엔여성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진행하여 국제협력 증진 및 양성 평등의 추진체계 강화를 목표로 2019년 대비 8.18% 증가한 5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여성·가족정책의식 확산사업은 주요정책 홍보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양성평등, 여성·아동 안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대국민 소통 및 정책 체감도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5.32% 증가한 18억원으로 편성하였다.

3 조부모와 손자로 이뤄진 가족을 의미한다.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일반 주요사업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52	56
여성가족부 정보화 추진(정보화)	39	38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8	18
국제개발협력(ODA)	10	10

자료: 열린재정, 「2020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성평등정책기반 강화 및 여성경제활동 지원

2020년 성평등정책기반 강화 및 여성경제활동 지원의 주요 사업을 보면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등이 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1:1로 구직자 상담을 통해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등으로 취·창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4.55% 증가한 585억원으로 배정되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19년 35개소에서 2020년 6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경력단절 예방 및 취·창업 지원을 2019년 대비 25억원 증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성평등정책 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주요사업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560	585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87	94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37	42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10	14

자료: 열린재정, 「2020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2020년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의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주요사업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549	63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333	350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224	251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90	244

자료: 열린재정, 「2020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교육·취업·자립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주배경청소년⁵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CYS-Net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이 CYS-Net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전문상담가의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얻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초기적응 및 진로지원, 탈북청소년의 적응 및 자립 지원,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14.77%가 증가한 63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⁴ Community Youth Safety-Net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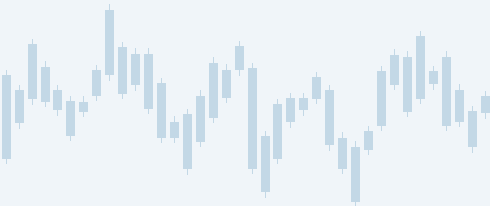
⁵ 자신이나 부모세대가 다른 사회에서 한국사회로 이주를 경험한 복수의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OECD
주요 재정·경제전망

「OECD Economic Outlook」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36개 회원국과 주요국의 향후 2년간 주요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한 경제전망보고서 「OECD Economic Outlook」를 매년 두 차례 발표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11월 21일(No. 106) 발표된 경제전망보고서의 2019~21년 전망에 관한 주요 내용과 국가별 정책 권고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경제·재정 전망

정책 불확실성의 지속과 무역 및 투자 위축 등으로 지난 2년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는 점차 하향 조정되어 왔다. OECD는 2020년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 성장률을 2019년과 동일한 2.9%로 전망하였으며, 2021년에는 3.0%으로 유사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OECD가 2020년 세계 GDP성장률로 2018년 11월에 전망한 3.5% 대비 0.6%p, 2019년 9월에 전망한 3.0% 대비 0.1%p 낮은 수치이다¹. 다만,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2019년에 1.2%까지 위축된 세계 무역성장률(상품과 서비스)은 2020년 1.6%, 2021년 2.3% 등 완만한 속도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0년 주요국 전망치를 보면 우리나라(2.3%), 미국(2.0%), 이탈리아(0.4%) 등은 2019년 9월 전망을 유지하였으나, 독일(0.4%)은 하향, 영국(1.0%)은 상향 조정하였다.

표 1. 세계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질 GDP성장률				
세계	3.5	2.9	2.9	3.0
G20	3.8	3.1	3.2	3.3
OECD	2.3	1.7	1.6	1.7
한국	2.7	2.0	2.3	2.3
미국	2.9	2.3	2.0	2.0
유로 지역	1.9	1.2	1.1	1.2
독일	1.5	0.6	0.4	0.9
이탈리아	0.7	0.2	0.4	0.4
영국	1.4	1.2	1.0	1.2
일본	0.8	1.0	0.6	0.7
비OECD	4.6	3.9	4.0	4.0
중국	6.6	6.2	5.7	5.5
인도	6.8	5.8	6.2	6.4
브라질	1.1	0.8	1.7	1.8
실업률	5.3	5.2	5.1	5.1
인플레이션	2.9	2.0	2.1	2.1
재정수지(GDP 대비)	-2.9	-3.2	-3.3	-3.3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	3.7	1.2	1.6	2.3

주: 2019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9.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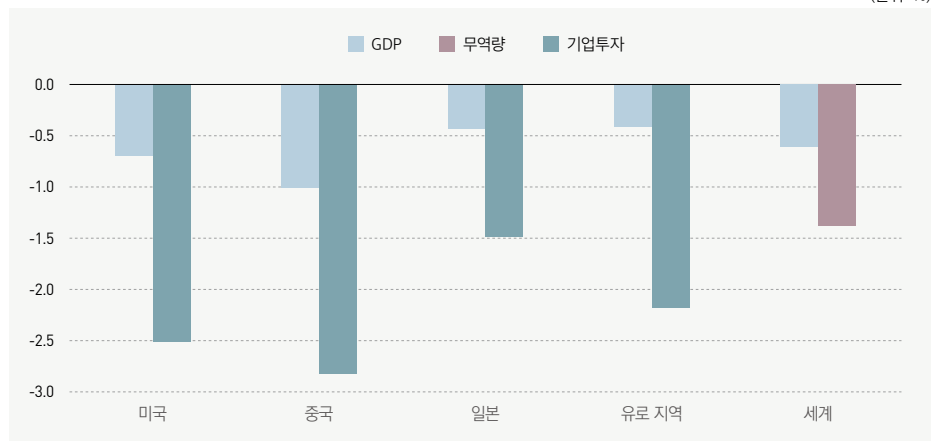
1. 「OECD Economic Outlook」(2018.11.14, No.104)은 세계 GDP성장률을 2018년 3.7%, 2019년 3.5%, 2020년 3.5%로 각각 전망하였고, 「OECD Economic Outlook」(2019.9.25, No.105)은 세계 GDP성장률을 2019년 2.9%, 2020년 3.0%로 각각 전망하였다.

주요 경기 하방 위험요인

OECD는 주요 경기 하방 위험 요인으로 국가 간 교역·투자 제한(보호무역조치) 강화를 제시하였다. 최근 몇 년간 G20 국가에서 신규 도입된 무역제한조치(Trade Restrictive Measures) 규모는 무역원활화조치(Trade Facilitation Measures) 규모보다 앞서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유럽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및 미·중 간 관세가 추가 인상되거나 서비스 부분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은 지난 2019년 10월 중순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관세 인상의 연기와 같은 긍정적인 기조에도 불구하고, 세계 GDP성장률을 2020년 0.3~0.4%p, 2021년 0.2~0.3%p 하락시키는 등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 미·중 무역갈등의 경제적 효과

(단위: %)



주: 2021년과 2022년 영향도 합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9.11.21.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경기 하방위험으로 분석하였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10월 브렉시트 재협상을 타결하였고², 의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다.³ 하지만, 양자 간 합의되지 않은 브렉시트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될⁴ 무역협상 결과 또는 새로운 규제 발생 등의 불확실성이 유로 지역 전반

²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관세영토 안에 속하며, 양 국가간 상품교역에는 상품이 유럽연합으로 유입될 위험이 없는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북아일랜드 의정서' 조항이 수정 타결되었다.

³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한을 2019년 10월 3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에 합의하였으며, 영국 하원은 2019년 12월 20일 브렉시트 탈퇴 협정법안에 대한 제2독회 표결에서 법안을 가결하고 제3독회를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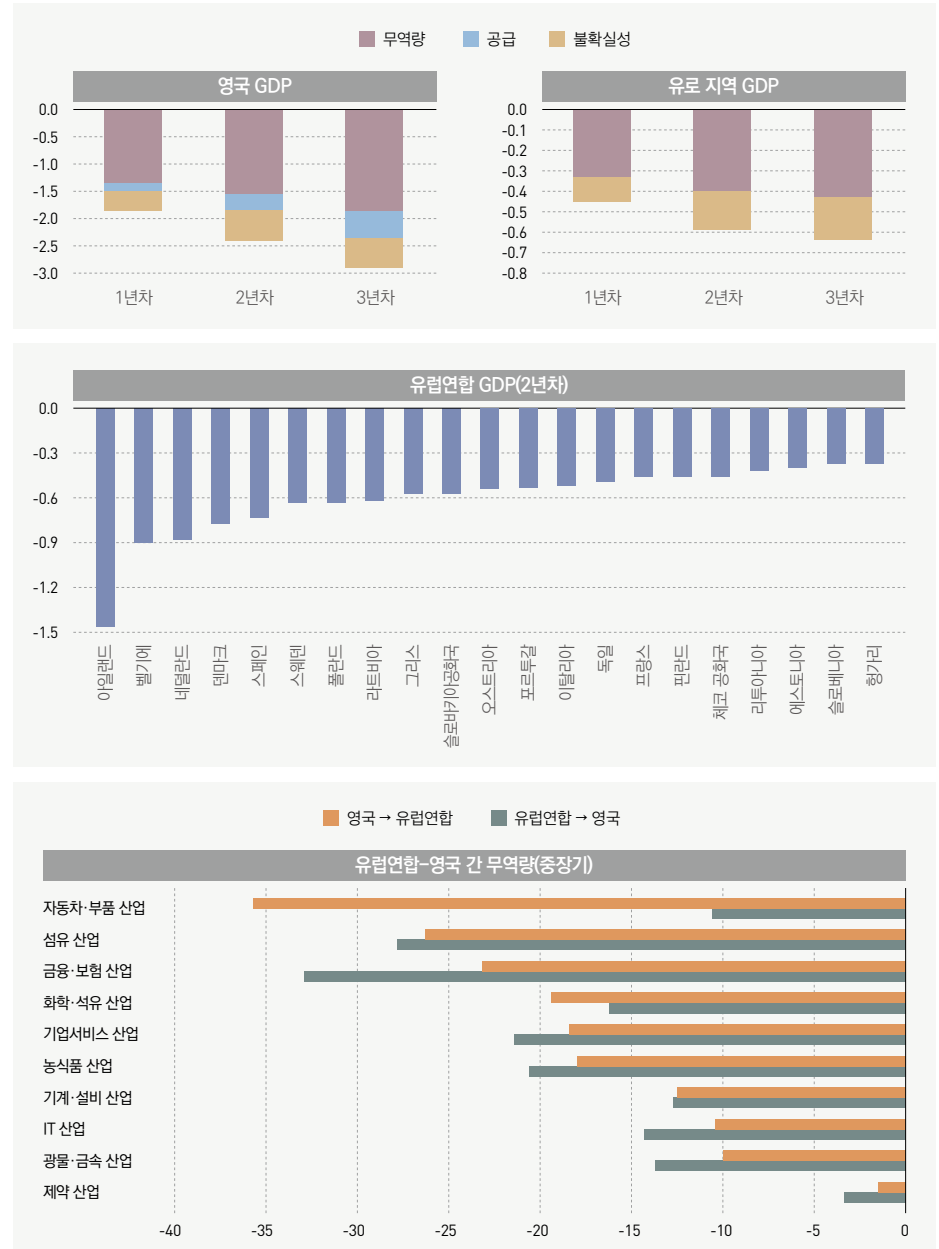
⁴ 기존 브렉시트 협의 결과에 따라 탈퇴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 기간을 두며, 이 기간에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관련법을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OECD 분석 결과, 2020년 이후 WTO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MFN) 조항을 체결하지 못 한다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관세 장벽으로 인해 무역량과 투자는 감소하고 공급비용은 상승하는 등 브렉시트 이후 2년간 영국 GDP는 2.0~2.5%p, 유로 지역 GDP는 0.5%p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그림 2. 무역협상 없는 브렉시트에 따른 잠재적 효과

(단위: %)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9.11.21.



OECD는 중국의 수입수요가 매년 2%p 감소한다면 세계 GDP 성장률은 처음 2년간 평균 0.7%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며,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세계 경제의 추가적인 둔화를 우려하였다. 이 밖에도,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의 역전, 높은 기업부채 등으로 인한 금융 취약성도 경기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정책적 권고 사항

OECD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함께 균형 있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권고하였다. 이미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에서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OECD는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이 전망치보다 현저히 둔화하는 경우에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지속추진을 주문하였다. 다만, 완화수준은 재정부양책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 둔화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비전통적(Unconventional)⁵ 통화정책의 완화는 자산가격(Asset Prices)을 높일 수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⁵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란, 저금리 상황에서 국채 등을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말하며, 지난 미국에서 시행했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OECD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되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진작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재정정책을 강조하였다. 특히,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높이고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 도입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OECD는 기술의 혁신, 직업교육 강화, 효율적인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 및 조세제도 등의 구조개혁과 함께, 정부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재정 투명성 등을 요구하였다.

우리나라 경제 전망 및 정책적 권고 사항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GDP 성장률을 각각 2.3%로 예상하며 2019년 9월 전망을 유지하였다. 세계경기의 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나, 공공일자리 창출에 따른 실업률은 감소세에 있으며 민간소비 및 반도체 수요의 증가 등이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OECD는 우리나라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노동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주문하였다.

표 2. 우리나라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GDP 증가율	3.2	2.7	2.0	2.3	2.3
민간소비	2.8	2.8	1.8	1.9	2.4
정부지출	2.8	2.8	1.8	1.9	2.4
총고정자본형성	9.8	-2.4	-4.1	0.0	1.2
수출	2.5	3.5	1.5	3.7	1.7
수입	8.9	0.8	-0.5	3.1	2.0
실업률	3.7	3.9	3.7	3.5	3.5
소비자물가	1.9	1.5	0.3	1.1	1.4
재정수지(GDP대비)	2.7	2.8	1.3	-0.1	-0.4
경상수지(GP대비)	4.6	4.4	3.5	3.9	4.0

주: 2019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9.11.21.



제1회 「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정보 공개포털인 「열린재정」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제1회 「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이하 논문 공모전)을 개최했다. 「열린재정」을 활용한 경제·재정·행정·통계 분야의 학술·정책 논문을 접수받아 꼼꼼한 심사를 거쳐 지난 2019년 12월 4편의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많은 응모자들 가운데 우수논문으로 당당히 선정된 4팀을 만나보자.

담당: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글: 정재림 사진: 한국재정정보원 제공



최우수상을 수상한 (좌)이민아, (우)김경동

논문 공모전 입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구 파트너와 함께 이번 논문공모전에 도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김경동 _____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과 정책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 공모전에 함께 지원한 이민아 후배와는 고길곤 교수님 연구실에서 함께 수학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학교에서 논문 공모전 포스터를 보고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재정 분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후배 민아에게도 함께 지원해보자고 권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훈 _____ 저와 이진희 선생님은 연구원에서 만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직장동료 겸 논문 메이트라고나 할까요? 이진희 선생님은 평소에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저와 함께 관광수요에 관련된 논문을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공모전에 함께 도전하게 되었죠.





우수상을 수상한 (좌)이진희, (우)박종훈



혼자서라면 지쳐서 중도 포기하거나
적당히 마무리했을 텐데,

**함께여서 많은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커지고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정건용 _____ 저희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윤승식 선배는 3년간 아주대학교를 함께 다닌 사이입니다. 복수전공부터 창업, 논문작성까지 참 많은 일을 함께 해왔네요. 마침 저희만의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던 터라, 교수님께서 논문 공모전에 참여해보라고 권유해주셨을 때 바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솔 _____ 저희는 조금 다른데요. 최돈위 님과는 2018년도에 미국의 한 행정학회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박사생으로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학회에 참석한 한국인이란 공통점 때문에 인연이 생겼지요. 서로 연구 강점을 살려서 수시로 아이디어를 교환했던 것이 연구 인연으로 발전했습니다.



최 우수 상

사업의 연속성과 예산의 변동성

저 자 김경동(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이민아(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고길곤(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구목적 「열린재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점증주의적 예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분석

사용자료 「열린재정」 2007~2019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현황(총액)자료의 부처,
프로그램, 단위사업의 예산 자료



김경동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이민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사업 예산의 연속성과 변동성 분석으로 예산의 점증주의 성격이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로,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주로 지원과 육성을 담당하는 부처가 단기사업 비중과 중도 탈락률이 높아 연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변동성은 부처단위에서는 적지만, 프로그램이나 단위 사업에서는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예산의 점증성 판단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예산이 점증주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부처, 프로그램, 단위 사업 등 사업의 단위가 작아질수록 예산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연구 과정 중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최돈위 _____ 연구자라면 공통적으로 느끼시겠지만, 논문 한 편을 완성시키기 위해 연구 주제 선정부터 데이터 수집, 문헌연구, 분석 등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도 겪기 마련이죠. 그래서 호흡이 잘 맞는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논문의 질도 올라가고요.

이진희 _____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훈 선생님은 성격이 느긋하신 편인데, 저는 조금한 마음에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해서 수업이 있던 박 선생님이 조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차츰 손발이 맞아갔죠. 저 혼자 서라면 지쳐서 중도 포기하거나 적당히 마무리했을 텐데, 함께여서 맡은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커지고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윤승식 _____ 매우 공감합니다. 정건용 선배와 저는 전화로 싸운 적도 있어요. 공동연구라는 게 방향을 잡을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 방향성을 두고 고민하면서 함께 한 방향으로 잡아나가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힘들어도 참 값진 경험이 됐습니다.



우 수 상

정부의 고용재정지출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진희
한양대
박사과정 수료



박종훈
송실대
박사과정

저 자 이진희(한양대 박사과정 수료),
박종훈(송실대 박사과정)

연구목적 「열린재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의 고용재정지출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사용자료 「열린재정」의 2007~2019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현황의 월별 자료 활용

마르코프의 국면전환 자기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노동수요의 2개의 국면을 구분하고, 국면별 재정지출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노동 관련 재정정책의 노동시간 증대효과가 상이함을 유추했으며,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국면에서는 노사정책, 산재보험,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직업능력개발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의 재정지출이 효과적이며 반대로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높은 국면에서는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의 재정지출이 노동시간 증가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임금정책 이외의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수요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논문 공모전에 참여할 분들을 위해, 이번 논문 공모전을 준비하시면서 느꼈던 소감을 들려주세요.



최돈위 — 이번에 논문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데이터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린재정」을 활용한 논문 공모전은 연구자들의 정부 데이터 활용을 촉진했지요. 그리고 데이터 활용 과정을 거친 연구자들의 피드백으로 데이터 제공 방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주최한 데이터 설명회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박진솔 — 논문 작성에 있어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데이터의 정합성과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논문 공모전에서는 「열린재정」 정보 덕에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승식 — 저도 공모전을 통해 배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사고의 전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목표했던 연구 방향에서 문제에 막혔을 때, 과감하게 연구의 방향을 틀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었지요. 이제와 돌아보면 결과를 내는 연구에 집중했다기보다 다른 연구들을 위한 선행 연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려상

재정정보 활용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기반 회계용어 형태소 분석기 구축



정건용
아주대학교
e 비즈니스학과



윤승식
아주대학교
e 비즈니스학과

저자 정건용(아주대학교 e 비즈니스학과)
윤승식(아주대학교 e 비즈니스학과)

연구목적 「열린재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소 분석기를 신규 구축

사용자료 「열린재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결산 재무제표 자료와 한국재정정보원의 「회계·기금 운용 구조」, 민간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을 활용

텍스트 마이닝 기법(N-gram 기법)을 활용한 회계용어 형태소 분석기를 구축하고, 재정분야 형태소 분석기 성능을 검증했다.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형태소 분석기의 문제점을 개선하였고 재무제표의 회계용어가 사용된 텍스트 분석결과가 기존에 비해 목적에 적합한 용어가 추출되도록 했다. 수치정보가 아닌 텍스트 데이터는 타 분야에 비해서 재정 분야의 활용이 미흡한 영역이었으나 본 연구와 같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 시도가 향후 비정형 데이터와 텍스트 분석 등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열린재정」에서 제공되는 수치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설명, 성과자료 등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좌)정건용



열린재정 정보 덕에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종훈 — 경제는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공부하면서 학문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다른 분야의 참신하고 훌륭한 다른 연구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논문 공모전에 참여하게 될 분들에게 「열린재정」 데이터를 충실히 활용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신한 방법론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수상자 선정에 가장 주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민아 — 부족한 제게 공모전을 제안해 준 김경동 선배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모전 전 과정을 함께 해주어 든든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논문 과정을 지도해주신 고길곤 교수님과 KOLAB 식구들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주신 한국재정정보원께도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려상

Local Government as a Catalyst for Promoting Social Enterprise

저자 박진솔(미 켄터기대 박사과정)

최돈위(미 텍사스 기술대 방문조교수)

연구목적 「열린재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회적 기업의 지원 효과를 2단계 경로로 실증 분석

사용자료 「열린재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1~2017년 기간의 223개 지방자치단체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박진솔
미 켄터기대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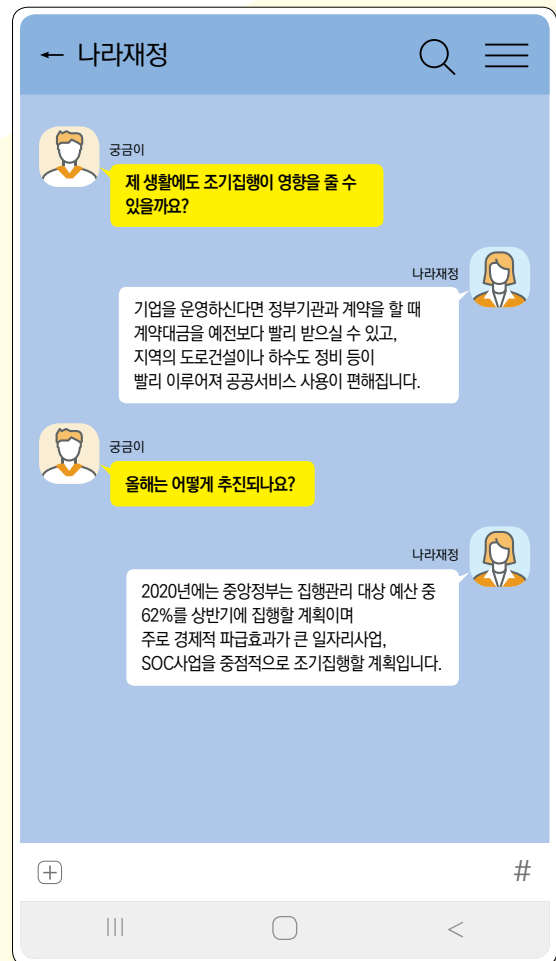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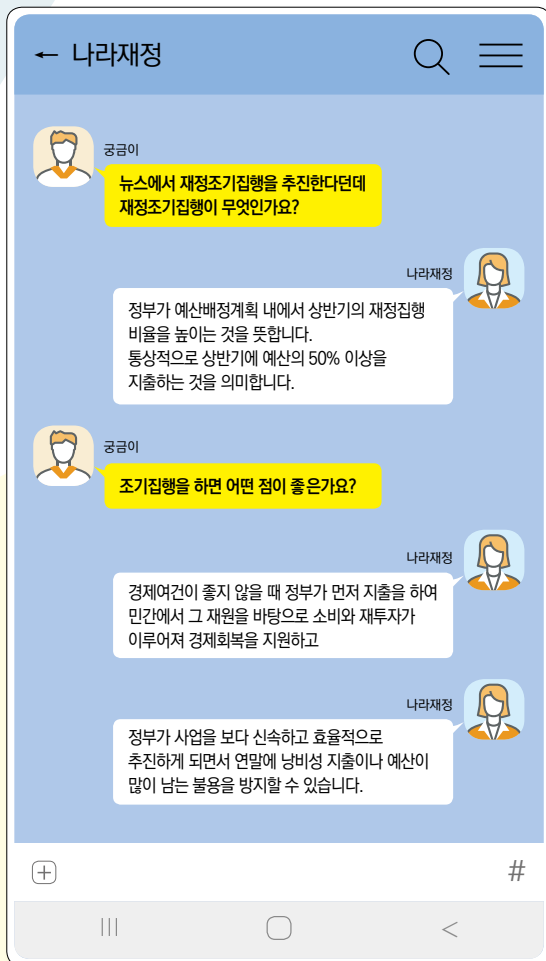
최돈위
미 텍사스 기술대
방문조교수

1인당 지방세의 규모가 클수록 자체 재원을 통한 사회적 기업 지원이 증가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증가시키는 것을 분석했다. 지방재정의 상황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기업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단계 과정을 통해 경로 분석을 시도했다. 지방재정의 예산제약은 각 지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에 복합적으로 하는 것과 지방재정 지원의 사회적 기업 증가는 1~2년의 시차가 존재함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 확산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했다.

재정조기집행은 무엇인가요?

최정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jungwoo1088@kpfis.or.kr)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반등 및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1+4 정책방향'으로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 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가구에
게 정부는 1년에 150만원~300만원의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근로장려금은 팍팍한 삶에 찾아오는 간만의
외식이 되기도 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적
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에 근로장려금
을 지급받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이 빨리 들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받
는 가구의 지출은 또 다른 자영업자나 기업
에게 돌아가 민간부문의 지출과 투자로 이
어집니다. 이러한 수혜자들의 마음을 알기에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2020년에는 설 명절전
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
부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일수록 정부
는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에 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실무상의 용어로 별도의 법
적 근거나 정의는 없지만 「국가재정법」에 근
거한 예산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
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것을 뜻하며, 통상적
으로 상반기에 예산의 50% 이상을 집행하
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조기집행은 두 가
지 목적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경제여건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출을 통해
민간투자 및 소비를 활성화시켜 상반기에 예
상되는 경기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조기집행을 추진합니다. 둘째로, 연초부
터 예산사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연말에
예산의 무리한 집행이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집행이 활용됩니다.

조기집행은 인건비나 행정기관 운영과 관련
되는 경비(기본경비), 정부 내부거래 등 매월
정상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비를 제외
한 사업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활성화와 관련 있는 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서민생활안정과
관련된 지출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
다. 2020년에도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하
여 집행관리대상 예산 305.5조원 중 62%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며 경제적 파급효과
가 큰 일자리 사업과 SOC 분야의 예산은 조
기집행 목표를 2019년 대비 각각 1.0%p 높
인 66.0%, 0.7%p 높은 60.5%로 설정하였습
니다.

정부가 추진한 조기집행은 국민의 일상생활
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등은 대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기존보다 짧아지고 선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한 정부가 추진하는 하수도정비, 도로건설
등이 보다 빨리 추진되어 공공서비스의 이용
여건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기집행
된 정부의 지출을 재원으로 민간부문에도 계
획보다 지출이 빨리 이루어져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상반기 집행계획

(단위: 조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중앙정부	162.7(58.0%)	178.1(61.0%)	189.3(62.0%)
- 일자리	6.9(63.5%)	8.8(65.0%)	7.9(66.0%)
- SOC	22.9(58.8%)	25.1(59.8%)	28.3(60.5%)

주: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제외, 2020년은 잠정치



Quentin Massys, 〈The Money Changer and His Wife〉, 1514, Oil on panel, 71x68cm, Louvre Museum, Paris

마시스의 <환전상과 아내>와 대부업 그리고

이자의 본질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퀸틴 마시스(Quentin Matsys, 1466-1530)는 플랑드르 화파를 창시한 화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대표작은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16세기 초엽에 그린 <환전상과 아내(The Money Changer and His Wife), 1514>다. 그는 섬세한 정밀 화법으로 부부의 모습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물도 신중하게 배치하였다. 그림 속 배경의 물건들은 도덕적인 상징성이 가미된 일종의 알레고리(allegory)라고 할 수 있다. 성모마리아가 그려진 기도와 아래쪽에 볼록거울에 비친 십자가 모양의 창틀, 그리고 선반 위에 놓인 사과 등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상징물들이다. 그 볼록거울 안을 자세히 보면 한 인물의 얼굴이 보이는데, 마시스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환전상과 아내>는 남편과 부인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림 속의 남편은 금화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동전들의 무게를 신중하게 재고 있다. 당시 대부업자는 여러 지역의 동전들을 취급하여 자연히 환전업을 겸하고 있었다. 마시스가 살았던 안트베르펜(Antwerpen)은 당시 플랑드르 지방의 상업의 중심지였고 당연히 여러 나라에서 제조된 주화들이 통용되고 있었다. 환전상은 각종 주화들을 저울로 재고 비교해서 각 동전들의 교환비율을 정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일이었으므로 금, 은, 동의 함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특히 금화의 무게를 속이지 않는 정직성이 환전상

에게는 생명 같은 일이었다. 게다가 저울은 최후 심판의 날에 영혼의 무게를 재는 도구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양심을 재는 일이기도 하였다.

남편 옆에 앉은 아내는 성모 마리아가 그려진 기도서를 보면서 남편이 하는 일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 부부의 모습은 세속적인 일과 성스러운 일로 대비를 이룬다. 마시스는 기도서를 읽기보다는 세속적 욕망을 채워주는 금이나 돈에 눈길을 주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은연중에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금화의 무게를 재고 동전을 세는 남편의 모습을 성모 마리아의 모습과 병치되게 그려놓음으로써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자들에게 높은 금리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을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영국은 물론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대부업으로 치부(致富)를 하고 있었고 고리대금을 받는 것으로 악명을 날리고 있었음을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근대사회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전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악덕(Evil)으로 여겼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업은 가난한 계층에게는 물론, 심지어 왕이나 교회에게도 전쟁 또는 교회 건축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직종이었다. 그런데 주로 유대인들이 대부업에 종사했으니 이들은 눈엣가시 같은 족속이었고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로 문학작품 속에서 묘사되기 일쑤였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나쁜 것인가? 중국고사에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우화가 등장한다. 고사에 따르면 송나라에 저공(狙公)이란 사람이 원숭이를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원숭이 수가 점차 많아지다 보니 먹이를 대는 일이 날로 어려워졌다. 그는 궁리 끝에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앞으로는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朝三而暮四)’씩 줄 생각인데 어때냐?” 원숭이들은 모두 화를 내었다. 그러자 저공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朝四而暮三)’씩 주면 만족하겠느냐?” 그러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했다고 한다. 이 고사는 잔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나 어리석게 속는 사람 모두에게 교훈을 준다고 열자(列子)는 설파한 바 있다. 이 우화는 어리석은 원숭이를 빗대어

우둔한 사람들을 풍자한 것인데,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가 같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문제인 것이다. 사실은 원숭이가 훨씬 더 사람보다 경제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며 이자율의 개념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자율은 경제에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매개변수이다. 즉 미래가치를 현재 화시켜주는 시간할인율(Time Discount Rate)로 작용한다. 한 재화의 미래가치는 현재가치보다 적다. 왜 그런가?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바나나 한 개와 내일의 바나나 한 개의 가치를 비교해 보자. 오늘의 바나나는 지금 바로 소비할 수 있지만 내일의 바나나는 오늘 소비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재화라고 해도 현재의 재화가 미래의 재화보다 더 가치가 있고 선호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내일의 재화는 오늘 소비할 수 없고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즉, 소비를 억제하고 ‘금욕’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를 억제하는데 따르는 고통과 비용이 수반된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바나나는 지금 확실히 소비될 수 있지만 내일의 바나나는 소비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소비 자체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자율은 항상 0보다 커야 한다. 그 경제학적인 이유는 금욕에 대한 대가,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소비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원시키는 할인율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같이 미래의 소비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이자율이 아주 낮더라도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래에 대한 할인율이 낮은 사회이다.

돈을 빌려주고 가혹할 정도로 고리를 갈취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사악한 것으로 치부된다. 샤일록의 경우처럼. 사실 돈은 벌기도 어렵지만 잘 쓰기는 더욱 어렵다. 돈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집착하기보다는 정당하게 벌고 가치 있게 쓰는 균형 잡힌 경제관념을 갖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시스는 환전상 부부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속세적인 것과 동시에 성(聖)스러움을 유지하는 균형 있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려는 것은 아닐는지….

「나라재정」이
추천하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돈의 세계사

- 돈의 흐름으로 읽는 4천년 세계 역사

01

지은이

세키 신코

- 세키 신코는 일본의 역사연구가로 손다익 입시학원 세계사 강사로 활약했고, 세계사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알차고 재미난 세계사 이야기책을 펴냈다.

옮긴이 곽범신

출판사 휴먼카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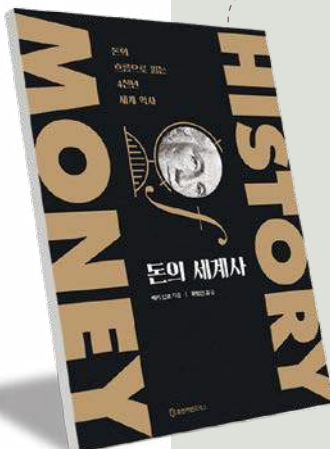
발간일 2019년 10월 14일

66

4,000년 역사를 실제로
움직인 것은 돈이었다.

기원전 30세기부터 근대국가와 자본주의가 확립된 19세기까지 경제사회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돈이다. 인류는 돈으로 인해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인 분쟁을 이어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돈은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어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제도적으로 확립되었고, 중세와 근세, 서구사회에서 돈의 중요성이 커져 은행업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역사책이 주로 정치와 전쟁을 위주로 이야기되었다면, 이 책은 '돈의 흐름'을 통해 역사를 해석한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시대를 살펴보고 서른 가지의 대표적인 역사 이슈로 구성했으며 챕터마다 그 시대에 쓰인 화폐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화폐와 물자의 이동, 영토의 변화 등이 한눈에 보이는 지도를 참고하면 고대문명이 탄생한 이후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기까지 세계 역사와 경제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을 통해 세계사를 배워보자.



PART 1 경제활동의 시작과 화폐의 탄생

기원전 30세기~7세기

고대 문명이 탄생한 이후부터 제국이 동서양을 지배하기까지의 인류사와 함께 태어난 화폐

PART 2 확대되는 시장과 동서무역

7세기~14세기

이슬람 상인의 광범위한 상업 네트워크와 유라시아 대륙 전역을 지배한 몽골 제국의 등장으로 활발해진 동서교역

PART 3 일원화되는 세계와 자본주의의 신장

11세기~19세기

대항해시대, 국가 간 이해가 세계적 규모로 얹히며 나타난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의 확립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02

지은이

헨리 해즐릿

- 헨리 해즐릿은 자유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언론인으로 10대 시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편집장 비서로 일하면서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이후 수많은 경제 논설을 썼다.

옮긴이 김동균

출판사 디케이제이에스(DKJS)

발간일 2020년 1월 23일

KPFIS's
library

66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길고 넓게 봐야 경제가 제대로 보인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경제학 오류의 일부를 받아들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경제학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는 없다. 즉 경제학의 오류, 특히 그 근거가 되는 중심 논리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경제학을 이해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쉘페터의 '장기적 경제이론'은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영향만 살펴서는 경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집단뿐이 아닌, 모든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경제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쉘페터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따르며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경제 법칙을 쉽게 설명한다.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학적 사고를 습득하게 해주는 이 책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경제의 양면을 살펴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보자.



PART 1 길고 넓게 봐야 제대로 보인다

경제학의 오류

장기적인 경제이론으로 경제 이해하기

PART 2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24가지 경제정책과 그 진실

PART 3 더 늦기 전에

30년 후의 이야기

자본주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경제를 보는 눈

Financial Calendar

1月 January

재정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January 01

- 재정**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 재정** 2019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2019년 채무결산 마감

March 03

- 재정**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 경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 경제**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August 08

- 인구**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September 09

- 재정**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경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020

□ '18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2019.12.26.)

-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0.1%로 '16년 이후 감소세이고,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56.9%로 '14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한 후 낮은 수준 유지

□ '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발표(2020.1.8.)

- 정부는 올해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포용적 복지예산의 적기집행을 목표로 하여,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를 305.5조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

□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2020.1.9.)

- 세계은행은 부진한 무역·투자 성과를 반영하여 세계경제성장률을 2.5%(상반기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로 전망하였으며, 선진국은 지속된 제조업 부진과 무역분쟁에 따라 0.1%p 하향 조정된 1.4%, 신흥시장·개도국은 무역과 투자 둔화 등으로 0.5%p 낮은 4.1%로 전망

April

04

- 재정** 2019년 결산감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 재정**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June

06

- 경제**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October

10

- 재정** 국유재산/물품 결산지침 확정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 재정**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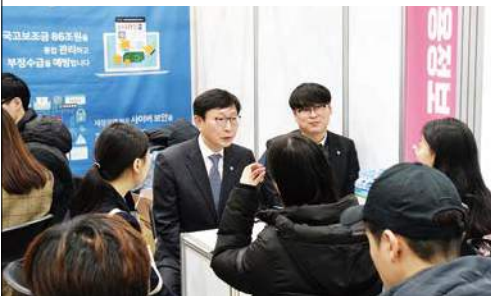
12

- 재정** 2021년 예산 확정
- 경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 김재훈 원장이 알려주는 취업준비 노하우

한국재정정보원은 1월 8일~9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정보원은 이날, '청년들과 함께 가고, 청년들과 멀리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일정, 채용규모, 시기 등의 채용정보와 취업 노하우 등을 전수했다. 정보원은 지난해 공정채용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힘내라 취준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노하우 등 내실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한국재정정보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은 12월 20일(금) 정보보안역량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보안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공동 실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소기업·스타트업의 혁신성장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보보안 관련 정보공유 및 보안이 취약한 민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상호 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보화와 정보보안 관련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소기업벤처기업 규제자유특구 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교육

e나라도움운영본부에서는 12월 11일(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특구별 지자체 및 실무지원단을 대상으로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벤처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특구 지자체 담당 및 실무지원단 약 1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특구관련 보조금 사업 추진시 필요한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및 관리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e나라도움운영본부에서는 향후에도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업하여 특구 담당자에 대한 e나라도움 교육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 상주 협력업체와의 갑질 예방 간담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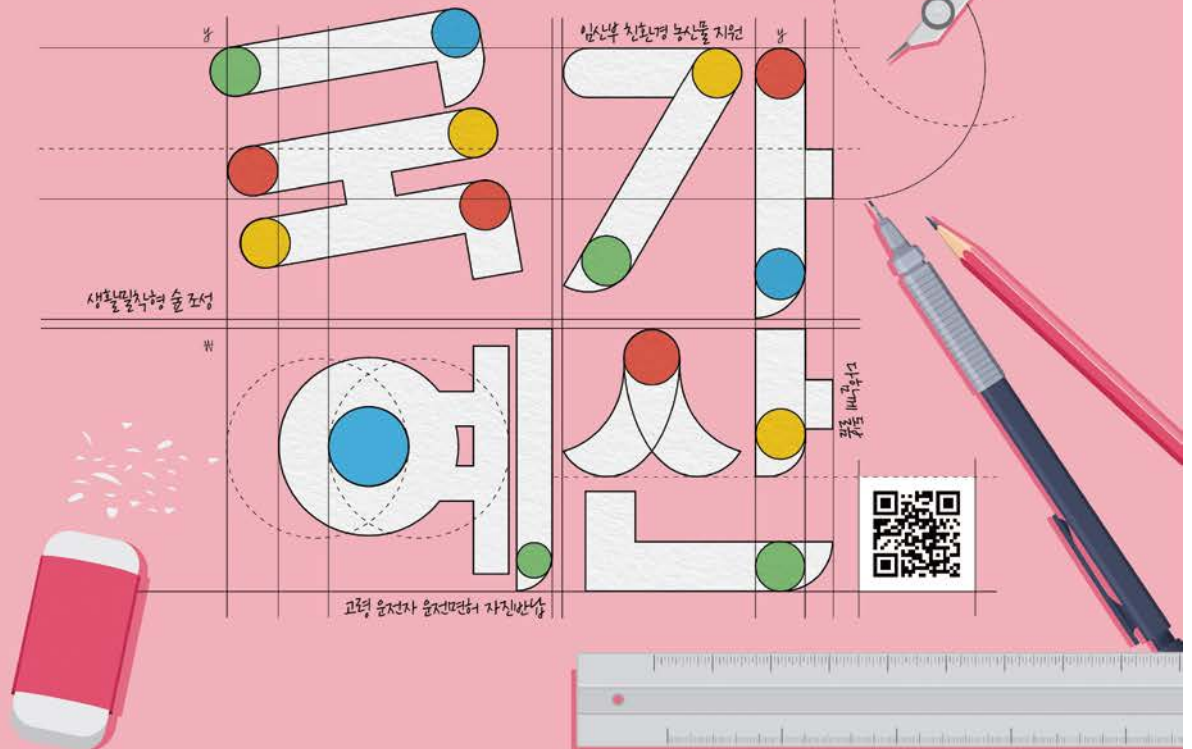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1월 29일과 12월 4일 양일간, 원장 및 비상임감사 주관으로 서울·대전·광주 지역 상주 협력업체와의 갑질 예방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보원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우수평가(2등급)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에도 자체적으로 'e-해피' 등의 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화 방문을 실시해 갑질 사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 중인 '갑질119신고함' 등 온·오프라인 신고방법 및 상담창구 운영방법을 안내함과 동시에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상생협력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갑질119신고함'은 자체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에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신고창구로써 '피해자를 구조·구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 신고 및 조치 활성화를 위해 상주 협력업체 근무 장소에도 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재정정보원 김재훈 원장은 "상생(相生)을 넘어서 상행(相幸) 하고, 상영(相榮) 하며 공공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로 국가예산을 디자인하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사업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지금! 국가예산 디자인어가 되어보세요.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방법



제안기간 ▶▶▶ 2020. 1. 15 ~ 2. 28 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수 ▶▶▶ www.mybudget.go.kr



이메일 접수 ▶▶▶ mybudget@korea.kr



우편 접수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사업제안 메뉴'에서
사업제안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주제선정 투표기간: 2020. 2. 1 ~ 2. 28)

- 제도소개 :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국민참여 공개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
- 참여방법 : 토론 주제선정, 해결방안 제안, 온라인 댓글달기,
현장 토론회 참석



이벤트 안내

- 참여단 안건으로 채택된 제안 :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제안 : **우수제안 인증서 수여**
-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주제선정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트콘 증정



애 독 자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QUIZ



아래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문 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총지출은
얼마일까요?

. 조원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 이메일 】
narajaejung@kpfis.or.kr

【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
2020. 2. 6. ~ 2020. 2. 16.

POSTCARD



12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
정부보관금

☆ 상품 당첨자 ☆

hop****@nate.com
tig*****@gmail.com
rni***@naver.com
plu****@naver.com
woo*****@yahoo.co.kr
sdj*****@hanmail.net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쿠폰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늘 관심있게 나라재정을 보고 있어요~

이번호에서 예산 집행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쉽게 정리 되어 있어 유익했어요!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재정정보원 파이팅!^^

plu****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